

## 흰 색 십이지 동물 상징성의 한일비교

금 영 진\*

### 국문초록

백말 띠 해, 황금돼지 해, 빨간 돼지 해 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방색과 십이지 동물의 조합은 60년 주기로 돌아오며 우리 생활과 늘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방색 혹은 십이지 동물의 상징성에 대한 연구 또한 동아시아 각국에서 오래전부터 널리 행해져 왔으며 국가 간 비교 연구도 최근 많이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청적황백흑의 오방색으로 분류된 십이지 동물의 상징성을 다룬 국가 간 비교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이는 물론, 그러한 발상이 가지는 미신으로서의 부정적 측면이 너무 부각되어 온 탓이 크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5가지 색깔의 십이지 동물이 만들어 내는 60가지 경우의 상징성이 동아시아 각 문화권에서 저마다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지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이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그 첫 단계로서, 한일 양국 고전에 보이는 흰 색 십이지 동물을 비교고찰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한일 양국의 고전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보이는 오방색이 흰 색이며, 실제로 흰 색 동물이 적지 않게 등장하기 때문이다.

흰 색 동물이 가지는 상징성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상서로운 이미지로 통한다. 하지만 한일 양국 간에는 차이도 또한 존재한다. 즉, 일본 고전에서의 흰 색 십이지 동물은 신과 인간을 연결해 주고 복을 전해주는 신의 사자 내지는 화신이라는 긍정적인 상징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한국고전에서의 흰 색 동물은 ‘긍정적인 특별함’과 ‘부정적인 괴이함’이라는 두 가지의 상반되는 상징성을 보인다.

즉, 일본인이 흰 색 동물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는 대개 ‘긍정’이지만, 한국인이 갖는 이미지는 ‘긍정’과 ‘부정’이 혼합 교차하며 일본인에게 있어서 흰 색 동물은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면 대개는 ‘행운’을 상징하지만 한국인에게는 ‘행운’일 수도 ‘불행’일 수도 있는 것이다. 또 흰 색 동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인에게 있어서 흰 색은 ‘양기(陽氣)’를 주로 상징하며, 이 점 일본인의 그것과는 구별된다. 조선시대의 효자가 백사(白蛇)를 잡고, 오늘날의 한국인들이 백수오(白首烏)를 찾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제어] 한일고전(韓日古典), 흰 색(白色), 십이지(十二支), 동물(動物), 상징성(象徵性)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대학 강사 / keumuek7@hanmail.net

## | 목 차 |

I. 서 론	III. 상징성의 상이와 그 배경
II. 한일 고전속의 흰색 십이지 동물	VI. 결 론

## I. 서 론

한일 양국 고전에서는 오방색 중 어떤 색깔이 가장 많을까? 정답은 양쪽 모두 흰색이다(〈표 1〉).<sup>1)</sup>

〈표 1〉 한일 고전에서 색깔별 오방색 등장 횟수

오방색	白	黑	赤	靑	黃
日本古典	10284	2119	2057	2309	1816
韓國古典	171974	19656	25729	93171	115285

흰색이 한일 양국의 고전에서 똑같이 풍부하다는 사실이 우선 눈에 띄는데, 한국고전에서의 오방색 425815건 중 흰 색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4%이며 일본고전에서의 오방색 18585건 중 흰 색이 차지하는 비율은 55.3%이다. 다섯 가지 색깔의 기본 비율이 공평하게 20%라고 한다면, 이는 2배에서 3배 이상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일 양국고전에 등장하는 오방색 십이지 동물 중, 흰색십이지 동물의 비중도 이렇게 높은지 궁금해진다. 이에 양국 고전 데이터베이스에 보이는 그 분포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 고전에 등장하는 오방색 십이지 동물 관련 어휘 11075건의 분포는, 흰 색 동물(5458건 **49.3%**), 파란 색 동물(2151건 19.4%), 노란 색 동물(2146건 19.4%), 검정 색 동물(891건 8.0%), 빨간 색 동물(429건 3.9%) 순이며, 일본 고전의 경우 총 331건 중, 흰 색 동물(166건 **50.2%**), 파란 색 동물(62건 18.7%), 빨간 색 동물(45건 13.6%), 검정 색 동물(42건 12.7%), 노란 색 동물(16건 4.8%)의 순임을 알 수 있다.<sup>2)</sup> 양국고전의 오방색 십이지 동물 중에서 흰 색 동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양쪽 모두 높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비율이 비슷하게 50% 전후라는 사실은 흥미로운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 1) 본 분석 자료는 일본국문학연구자료관 제공 데이터베이스에 보이는 (구)일본고전문학대계(이와나미 서점) 556작품과, 고전번역원에서 제공하는 한국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에 보이는 고전번역서 153종 614책, 한국문집총간 1131종 465책 외에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을 필자가 직접 검색한 결과이다(2016년 1월 현재). 이하,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든 데이터 분석 표 역시 이들을 이용하여 필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한 것임을 밝혀 둔다. 일본국문학자료관 데이터베이스 주소는 다음과 같으며 국내의 경우, 허가된 대학기관 구내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시 검색이 가능하다([http://base1.nijl.ac.jp/infolib/meta\\_pub/CsvSearch.cgi](http://base1.nijl.ac.jp/infolib/meta_pub/CsvSearch.cgi)) 그리고, 고전번역원 인터넷 주소는 다음과 같다(<http://www.itkc.or.kr/itkc/Index.jsp>).
- 2) 한국 고전에서는 오방색 십이지 동물 관련 어휘가 병신년이나 을사년처럼, 실제의 동물이 아닌 십이간지 연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 본 데이터 수치에는 순수한 동물뿐만 아니라 십이간지 연도, 지명, 동물의 가족이름 또한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일본 고전에서는 이러한 어휘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순수하게 오방색 십이지 동물만이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중국에서 신선(神仙)의 발을 백족(白足)이라 하고, 남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춘 사람을 백미(白眉)라 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흰색이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가지는 전통적인 상징성은 기본적으로 상서롭고 긍정적이다. 그리고 흰색에 대한 중국인들의 이러한 생각은 흰색 동물을 상서롭게 여기는 발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그러한 영향은 한국고전의 다음 기술에서도 나타난다.

고대에는 흰색의 동물을 상서(祥瑞)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으니, 대체로 주공(周公)이 섭정할 때 월상국(越裳國)이 **흰 꿩**을 바친 이후로 그러하였다. **흰 이리**가 황복(荒服)의 들에 나타나자 목왕(穆王)이 이를 잡아 왔고, **흰 토끼**가 부리(苻離)의 발에 나타나자 한퇴지(韓退之)가 이를 칭송하였는데, 이번에도 **흰 사슴**을 잡아 이를 상서로 여겼으니,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 무엇에 근거하여 나온 것인가?<sup>3)</sup>

고대 중국에서는 흰 꿩, 흰 이리, 흰 토끼, 흰 사슴을 상서롭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흰 사슴으로 변한 신선이 선녀와 놀았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는 제주도 한라산 정상에 호수 이름이 백록담(白鹿潭)이라는 사실도 이러한 발상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미 삼국시대부터 한국인들은 흰 색에 대해 대체로 상서롭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품고 있었다고 한다.<sup>4)</sup>

그리고 흰색 동물이 가지는 이러한 긍정적인 상징성은 일본인들에게서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대왕 시기에 흰 색 동물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한 일본 대마도 도주의 이야기(“대마주(對馬州) 종정성(宗貞成)이 중(僧) 도은(道恩)을 보내어 환도(環刀)와 원숭이를 바치고, 인하여 『대장경(大藏經)』과 백견(白犬)·백학(白鶴)을 청하였다.”)<sup>5)</sup>가 그 증거이다.

대마도 도주가 흰 개와 흰 학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것은 분명 일본인들도 흰 색 동물을 상서롭고 긍정적인 존재로 바라보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흰 꿩’, 즉 ‘백치(白雉)’가 현상된 것을 계기로 650년에서 654년의 연호를 백치로 바꾸었으며, 이 시기의 일본문화를 오늘날 백봉(白鳳)문화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 고닌 천황(光仁天皇)때는 흰 거북이 현상된 것을 계기로 770년에서 781년까지의 연호를 ‘호키(宝龜)’라 칭한 바 있다.<sup>6)</sup>

3) “古者多以物之色，白者爲瑞。蓋自越裳之獻白雉而已然。狼白於荒服之野，而穆王得來。兔白於苻離之田，而退之稱頌。今又以白鹿爲瑞。皆何所取而然歟。” 한국고전종합 데이터베이스(『홍재전서』 제116권 경사강의(經史講義) 53 ○강목(綱目) 7 [진 선제(陳宣帝)])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활자본(규572).

4) 이 연구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색채어의 종류와 빈도를 분석하고, 삼국시대 색채어의 길흥표현기능을 살펴보았다. 총 75개의 색채어가 삼국사기에 사용되었다. 삼국사기에 색채어가 나오는 사례는 350개였다. 이 중에서 한국의 기본 색채어인 하양(백, 소, 옥: 77회), 빨강(적, 비, 홍, 주, 강, 단, 성: 60회), 까망(흑, 오, 현, 조, 치: 31회), 파랑(청, 벽: 21회), 노랑(황: 21회)이 210회로 전체의 60%를 차지하였고, 27회로 네 번째로 많이 사용된 보라(자)를 합치면 전체의 67%를 차지하였다. 색채어가 길함을 나타낸 경우가 73회였고, 흉함을 나타낸 경우가 33회로 전체 사례의 약 30%가 길함을 표현하고 있었다. 백은 주로 길함을 나타내고, 흑은 흉함을 나타낸다. 자와 청은 길함을 나타내고, 황은 길함과 흉함을 함께 나타내었다(이규완, 「삼국시대 색채어의 종류와 길흥표현기능에 관한 연구: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 3, 한국언론학회, 2011, 103~122쪽 초록에서 발췌).

5) “對馬州。宗貞盛遣僧道恩，獻環刀及猿，仍請《大藏經》及白犬白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조선왕조실록』 세종 31년 기사(1449, 정통 14) > 8월 19일(병인) > 세종 31년 기사(1449, 정통 14) 8월 19일(병인) 31-08-19[03] 전주 사고본(全州史庫本).

6) 아나토노 쿠니(穴門國 - 지금의 야마구치현(山口県))의 국사(國司)인 구사카베노 시코부(草壁醜経)가 흰 꿩을 천황에게 바친 것을 계기로 연호를 바꿨다고 한다(その祥瑞の例として、『日本書紀』孝徳天皇の条に、長門國司が白雉をたてまつったことが

하지만 흰 색 동물들이 늘 긍정적인 상징성만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며, 한일 양국 간에도 상징성이 서로 유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분명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흰색 동물을 상서롭지 않게 보는 발상 또한 존재하였으며, 이는 세종대왕의 다음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임금이 대언(代言)들에게 이르기를, “참판(參判) 이명덕(李明德)이 의주(義州)로부터 돌아와서 [창성(昌盛)이 흑호(黑狐)와 백안(白雁)을 보고 이것은 모두 상서로운 물건이다. 천하에서 반드시 와서 하례할 것이다.]라고 하였다고 전하는데, 내가 역대의 일을 고찰하니, 흑호, 백안, 백지(白雉)는 모두가 상서로운 물건이 아니다. 주나라 때에도 흑호를 바친 바 있고, 수(隋)나라 양제(煬帝) 때에도 흑호를 바친 적이 있다. 또 기린(麒麟)도 성창한 시대에 나오기도 하고, 혹은 쇠잔한 시대에 나오기도 하였다. 이것으로 본다면 상서라는 것은 족히 믿을 것이 못된다.”<sup>7)</sup>

세종대왕은 검은 털 여우와 하얀 기러기, 그리고 하얀 꿩을 상서롭다고 보는 생각에 대해 부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하얀 꿩 때문에 연호까지 바꾼 일본인들의 그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한일 양국에 있어서 흰 색 십이지 동물이 가지는 상징성은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발상도 한국인에게는 분명 있었던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일 양국 고전에 보이는 흰색 동물의 상징성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공통점 및 상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네 발 달린 들짐승 중심인 십이지 동물을 대상으로 하여 흰색을 덧입힌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았을 때 한일 양국 간에는 어떠한 공통점과 상이점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 상대고전에서는 두 발 달린 날짐승, 즉 조류로서의 흰 색 동물이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쓰지 후데오(辻筆雄)씨의 연구에 의하면, 『니혼쇼키(日本書紀)』에서는 흰 꿩(白雉·白山鷄) 말고도, 흰 참새(白雀), 흰 매(白鷹), 흰 솔개(白鷂), 흰 제비(白燕), 흰 가마우지(白鶉), 흰 집 기러기(白鶩鳥), 흰 박쥐(白蝙蝠), 흰 까마귀(白鳥)가 바로 그러하다. 흰 새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고대신앙에 있어서 흰 새가 신의 사자 혹은 왕의 혼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며, 이들은 대개, 길조를 상징하는 동물로서 그려진다.<sup>8)</sup> 그리고 이러한 흰 색 날짐승에서 흰 색 들짐승, 특히 십이지 동물이라는 공통적인 대상동물로 그

ら、百濟君から「中国で白雉・白雀・白鹿などが出現するときは、王者の徳が四方に行きわたっており、仁政が行われている時である」との説明を受けられた天皇が、年号を「大化」から「白雉」と改元する例、また少し時代が下って光仁天皇も白い鳥が献上されたことによって、年号を「宝亀」とした、という例などがみられる。) 辻筆雄, 「日本の古典文学と色彩 [1]」, 『宝塚造形芸術大学紀要』7, 宝塚造形芸術大学, 1993, 149쪽.

7) “○丁巳/視事。上謂代言等曰: “參判李明德還自義州言: ‘昌盛見黑狐、白雁曰: ‘此皆瑞物、天下必來賀。’予考歷代黑狐、白雁、白雉、皆非瑞物也。周時、獻黑狐、隋煬帝時、亦獻黑狐。且麒麟或出盛世、或出衰世。以此觀之、祥瑞不足信也。”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조선왕조실록』 세종 10년 무신(1428, 선덕 3).

8) (まず目立つのは、『日本書紀』における白い動物、それも白雉・白雀・白鷹・白鷂・白燕・白鶉・白鶩鳥・白山鷄・白蝙蝠・白鳥などと圧倒的に白い鳥類が多いことである。これらの白い鳥は、実際にはおそらく突然変異的に出現したものであろうが、いずれも極めて珍しいものとして、ほとんどが吉事の兆しとして扱われている。こういう例からも、例えば古代インドで白い象を神聖視するなど、古代から中世にかけての世界の様々な国家でも“白”を神を象徴する色として、靈魂や純潔といった観念を表す意味に解釈している例が多いように、日本においても古代には“白色”というものを、瑞祥的な意味で特別な色として

범위를 좁혔을 때 한일 양국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궁금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양국 고전에서의 흰 색 십이지 동물의 분포양상을 표로 나타내자면 다음과 같다.

〈표 2〉 한일 고전속의 흰색 십이지 동물 분포

	白鼠	白牛	白虎	白兔	白龍	白蛇
韓國	26	98	②1171	80	④456	39
日本	②26	10	6	2	9	9

  

	白馬	白羊	白猿	白鷄	白犬	白猪
韓國	①3038	181	111	167	86	5
日本	①60	0	12	2	9	③21

(※ 오방색의 돼지 용례는 한일 양국자료에서 전혀 검출되지 않은 관계로 오방색의 멧돼지를 중심으로 한일비교 하였음을 밝혀 둔다.)

이 도표를 통해, 양국 고전에서는 흰 말(①④)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함을 알 수 있는데, 십이지 동물 중 말이 양국 고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이는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sup>9)</sup> 즉, 한국 고전에 등장하는 십이지 동물 중 약 30%, 일본 고전에 등장하는 십이지 동물 중 약 44%가 말인 것을 감안할 때, 흰 색 십이지 동물 중 흰 말이 양국 고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그리고 〈표 2〉를 통해, 말에서 흰 말로 바뀌었을 때의 분포비율에 약간의 변화가 생김을 알 수 있다. 즉, 한국고전에 등장하는 흰 색 십이지 동물 관련 어휘 5458건 중 3068건(56.2%), 일본 고전에 등장하는 166건 중 60건(36.1%)이 흰 말인 것이다. 일본 고전에서는 44%에서 36%로 약간 하락하였지만, 한국 고전에서는 30%에서 56%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흰 말이 한국 고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상징성이 일본보다 훨씬 크다는 반증일 수 있다.

또, 한국 고전에서는 ②흰 호랑이와 ③흰 용, 일본 고전에서는 ②흰 쥐와 ③흰 멧돼지가 각각 자국 내 빈도수 3위 안에 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용호상박이나 동청룡서백호 같은 중국 고전의 전형적인 표현만 봐도 한국 고전에서 흰 호랑이와 흰 용이 많이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나, 일본 고전에서 흰 쥐와 흰 멧돼지가 많이 보이는 것은 예상 밖이다.

이에 이번에는, 오방색 십이지 동물들 중에서 흰색 동물은 양국 고전에서 각각 어느 정도의 비율을 점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십이지 동물 속에서의 각 동물별 기본 비율은 8.3%이지만, 오방색 동물의 경우, 각 색깔별 동물의 기본비율은 대략 20% 전후가 될 터이다. 그리고 특정 색의 동물이 이를 현저히 넘는다

扱っていたことが推測できる。) 辻筆雄, 앞의 논문, 149쪽.  
 9) 한국고전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된 십이지 동물관련 어휘 402662건 중 말은 119790건으로 그 분포비율은 29.7%이며, 일본 고전 데이터베이스의 십이지 동물관련 어휘 18455건 중 말은 8144건으로 그 분포비율은 44.1%이다. 12종 동물 각각의 기본적인 분포비율이 약 8.3%이어야 함을 감안할 때 약 3배에서 5배 많음을 알 수 있다.

는 것은 그 나라에서 해당 색깔동물의 분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오방색 십이지 동물 중 흰색동물의 분포비율

	①白鼠	白牛	①白虎	②白兔	白龍	③白蛇
韓國	11.2%	10.3%	94.6%	34.6%	12.8%	11.8%
日本	96.3%	31.2%	100%	100%	15.2%	64.2%

  

	②白馬	白羊	③白猿	④白鷄	白犬	白豬
韓國	93.5%	61.1%	60.3%	34.7%	27.5%	11.3%
日本	59.4%	0%	80%	100%	34.6%	48.8%

〈표 3〉에서 보듯, ①흰 호랑이, ②흰 말, ③흰 원숭이와 같은 동물들은 한일 양국 고전에서 똑같이 6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본문에서도 다시 다루겠지만, 중국고전 또는 불교문화의 영향이 한일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①흰 쥐, ②흰 토끼, ③흰 뱀, ④흰 닭의 분포비율이 한국에서는 10%에서 많아야 30%대 전후인데 반해, 왜 유독 일본에서는 이들의 비율이 현격히 높은지가 궁금해진다. 그리고 특정한 흰 색 십이지 동물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그 문화권에 있어서 해당 흰 색 동물이 특별한 상징성을 지니며 보편적으로 흔히 인식되어왔을 것이라는 가설을 가능케 한다.

아무튼 양국 고전 속에서의 이들 동물들의 상징성 비교분석을 통해 그 상징성과 상이점을 분석해 본다면, 특정 흰색 동물들이 각각의 문화권에서 왜 더 많이 등장하는지 그 이유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양국 고전에 보이는 흰 색 십이지 동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러한 상징성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한일 고전속의 흰색 십이지 동물

그러면 양국 고전에 보이는 흰 색 십이지 동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양국 고전에 보이는 오방색 쥐와 그 속에서의 흰 쥐의 분포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흰 쥐(白鼠)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세종 10년 11월 19일조에 의하면, 명나라 황제가 흰 쥐를 상서롭게 여겨

길렀다는 내용이 보이며,<sup>10)</sup> 또, 흰 쥐가 낮을, 검은 쥐가 밤을 상징한다는 불교적 내용도 보이나, 이 말고 흰 쥐에 대한 한국 특유의 이미지가 딱히 드러나는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표 4〉 오방색 쥐 중 흰 쥐의 한일 분포비율<sup>11)</sup>

쥐	白鼠	黒鼠	赤鼠	靑鼠	黃鼠
日本古典	26	1	0	0	0
韓國古典	26	11	31	109	54

한편, 『서대주전(鼠大州傳)』같은 조선시대의 동물우화소설에서도 알 수 있듯이,<sup>12)</sup> 기본적으로 쥐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부정적인 존재로서의 상징성을 지닌다. 그것은 “낮말은 참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홍만중 『순오지(旬五志)』)라는 한국 속담이, 낮과 밤에 인간의 곡물을 훔쳐가는 두 동물을 의식한데서 비롯되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물론 일본에서도 에도시대 때의 대도(大盜)의 별명이 ‘네즈미코조(鼠小僧)’였던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쥐는 도둑을 상징한다.

하지만 쥐의 색깔이 일반적인 검정이나 회색이 아니라 흰색이 되게 되면 그 상징성은 바뀌게 된다. 인간의 재물을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인간에게 재물을 가져다주는 모습이 그것이다. 그것은 흰 쥐가 칠복신(七福神)중 한 명으로 음식의 풍요를 담당한다는 부역의 신 다이코쿠텐(大黒天)의 사자로서 그려지는 에도시대 후기의 우키요에(浮世繪)에서도 잘 알 수 있다(〈그림 1〉).

그리고 이는 중국고전의 영향 때문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태평광기(太平廣記)』 440권에, 흰 쥐가 나온 곳을 파보면 재물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보이기 때문이다.<sup>13)</sup>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일본 고전에서의 흰 쥐는 재물을 가져다주는 다이코쿠텐의 사자라는 이미지와 더불어, 충성스러운 부하라는 상징성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에도시대의 소설인 『고쇼쿠 이치다이온나(好色一代女)』에 보이는 흰 쥐라 불리는 충성스러운 하인의 모습과, 『순쇼쿠 우



〈그림 1〉 주코도 요시쿠니(壽好堂よし国)의 다이코쿠텐(大黒天) 그림.  
<http://www.creyon-nurie.com/2007/7/fukujin/newpage48.html>

10) (윤봉(尹鳳)의 말에 의하면 지금 황제께서 상서를 너무 좋아하여 백서(白鼠)·백토(白兔)까지도 모두 길들여 기르면서 애완(愛玩)하신다 하니, 만약 이변에 바치는 흑호와 백안, 그리고 해청을 보신다면 반드시 심히 기뻐하실 것이다. 然尹鳳言: ‘今皇帝寵放祥瑞, 至於白鼠白兔, 皆令馴養而翫。’) 고전번역원 고전종합데이터베이스 국역조선왕조실록 > 세종 10년 무신(1428, 선덕 3) > 11월 9일(정사) >

11) (일본고전의 오방색 쥐 27건 중 26건 96.3% / 한국 고전의 오방색 쥐 231건 중 26건 11.2%) \* 여기에서 청서(靑鼠)는 날다람쥐, 즉 청설모로 파란 쥐가 아니다. 또 황서(黃鼠)는 족제비를 말하며 누런 쥐는 아니다.)

12) 윤세순, 「한문소설에 나타난 주요 동물의 문학적 형상」, 『동방한국중국문학』 62, 동방한문학회, 2015, 69~76쪽.

13) 양희석, 「띠와 쥐의 설화」, 『中國語文學』 65, 한국중국어문학회, 2010, 57쪽.

메고요미(春色梅兒譽美)』에 보이는 집사 주시치(忠七)를, 주인이 아끼는 “비장의 흰 쥐”라고 묘사한 내용 등이 그러하다.<sup>14)</sup>

「재복을 주는 신의 사자+충성스러운 부하」라는 흰 쥐의 이러한 두 가지 이미지는, 오구니누시(大國主-다이코쿠누시라고도 읽기에 발음의 유사성 때문에 후에 다이코쿠텐과 습합됨.)가 불에 타 죽게 생겼을 때 살아날 수 있도록 흰 쥐가 도움을 주었다는 설화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sup>15)</sup> 즉, 재복을 가져다주는 다이코쿠텐의 사자로서의 흰 쥐와, 오구니누시를 위기에서 구한 충성스러운 부하로서의 흰 쥐의 상징성이 신불습합(神仏習合)에 의해 합쳐진 결과에 다름 아닌 것이다.

## 2. 흰 소(白牛)

동아시아 고전에서의 흰 소는 대개 불교적 상징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불교적 깨달음으로 이끄는 대백우차(大百牛車)의 용례가 바로 그러하다. 불교에서 흰 소를 상서롭게 보는 것은, 물론 흰 코끼리가 옆구리에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석가모니(釋迦牟尼)를 낳았다는 마아부인(摩耶夫人)의 이야기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표 5〉 오방색 소 중 흰 소의 한일 분포비율<sup>16)</sup>

소	白牛	黒牛	赤牛	靑牛	黃牛
日本古典	10	8	0	3	11
韓國古典	98	95	12	460	283

그리고 흰 소가 가지는 이러한 불교적 상징성은 흑우(黒牛)와 백우(白牛)를 대비시킨 한국의 선시(禪詩)에서도 확인된다. 흑우를 선 수행 과정의 상징으로, 백우를 선 수행 과정을 거쳐 오도(悟道)에 이른 모습으로 형상화한 것이 그러하다.<sup>17)</sup> 참고로, 한국고전에서는 흰 소보다는 푸른 소, 즉, 노자가 탔다는 청우(靑牛)가 훨씬 많이 눈에 띄는데 이때의 청우는 파란 빛깔을 띠는 검은 소이지 파란 소는 아니며 주로 도교적 세계를 상징한다.

14) (京の旦那の爲に白鼠といはれて、大黒柱に寄添て、人の善惡を見て、其かしこき又もなき人なるが。) 国文学研究資料館 제공 日本古典文学大系(旧)데이터베이스(岩波書店), 『春色梅兒譽美』, 152~153쪽 및 (「家内のしまりの重手代、親父が秘藏の白鼠、その名も忠義の忠七が、ハテ心得ぬ此場の始末」) 『好色一代女』, 402쪽.

15) 스サノオは広い野原の中に射込んだ鳴籟(なりかぶら)を拾うよう葦原色許男神に命じた。葦原色許男神が野原に入ると、スサノオは火を放って野原を焼き囲んだ。葦原色許男神が困っていると鼠が来て、「内はほらほら、外はすぶすぶ」(穴の内側は広い、穴の入り口はすぶまって狭い)といった。それを理解した葦原色許男神がその場を踏んでみると、地面の中に空いていた穴に落ちて隠れることができ、火をやり過ごせた。また、その鼠はスサノオが射た鳴籟を啜えて持って来てくれた。戸部民夫, 『日本神話…神々の壮麗なるドラマ』, 神谷礼子画, 新紀元社, 〈Truth In Fantasy〉(原著2003年10月26日) 初版, 84~87쪽.

16) (일본고전의 오방색 소 32건 중 10건 31.2% / 한국고전의 오방색 소 948건 중 98건 10.3%)

17) 조태성, 「한국 선시에 나타난 소[牛]의 상징성」, 『배달말』 40, 배달말학회, 2007, 278~282쪽.

한편, 흰 소가 보이는 불교적인 상징성은 일본고전에서조차 별반 다를 바 없어, 일본 최초의 불교설화집인 『니혼료이키(日本靈異記)』에서는 거지에게 흰 쌀을 시주하는 것은 대백우차를 얻기 위해 선을 쌓는 행위라는 내용이 보인다.<sup>18)</sup>

그런데 흰 소가 한국에서 늘 긍정적인 상징성만을 보인 것은 아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이는 성종의 태도, (“요괴한 물건은 예로부터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한 태 안에서 세 아들을 낳은 경우도 있었다. 지난번에는 백우(白牛)를 바친 자가 있었기에 내가 괴이(怪異)하게 여기고 물리쳤는데, 그 때에는 그 괴이함을 말한 자가 없었다.”)<sup>19)</sup>는 그 좋은 예이다. 성종(成宗)의 불교에 기우는 듯한 태도에 신하들이 반발하자 성종이 자신은 애초부터 흰 소를 괴이하게 여겼다고 신하들에게 되묻는 장면이다. 여기에서는 흰 소의 희소성이 괴이함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런 태도는 흰 소를 상서롭게 여기는 불교전통과는 다소 상이하다 할 수 있다.

물론 한국과 일본에서의 상식적인 소의 색깔은 황적색 또는 검정색이며, 흰 물소가 흔한 인도 및 동남아시아와는 사정이 다르다. 흰 소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한국고전에서 흔히 나타나는, 흰 색 동물이 변괴의 조짐이라는 인식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고구려의 차대왕이 평유 언덕에 사냥을 나갔을 때 흰 여우가 쫓아 온 이야기나 백제 의자왕 시기에 궁 안의 좌평 책상에 흰 여우가 올라와 앉았다는 이야기, 신라 진평왕 시절에 흰 개가 대궐 담 위에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각각, 고구려 차대왕의 시해와 백제의 멸망, 그리고 신라 이찬 철숙과 아찬 석품의 반란이라는 흉사의 전조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sup>20)</sup>

### 3. 흰 호랑이(白虎)

한국 고전에서 흰 호랑이가 많은 것은 ‘동청룡서백호(東靑龍西白虎)’의 사신도(四神圖)관념에 비추어 볼 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흰 호랑이의 경우, 기본적으로 서쪽 방위 또는 무신(武臣)을 상징하며, 이점은 일본 고전도 마찬가지이다.

〈표 6〉 오방색 호랑이 중 흰 호랑이의 한일 분포비율<sup>21)</sup>

호랑이	白虎	黒虎	赤虎	靑虎	黃虎
日本古典	6	0	0	0	0
韓國古典	1171	23	16	5	22

18) 『日本靈異記』 下卷第卅八「災與善表相先現而後其災善答彼縁」(白米を撃げて乞者に獻るとは、大白牛車を得むが爲に、願を發し、佛を造り、大乘を寫し改め、懃に善因を修するなり。乞者咒願して受くとは、觀音の願ふ所に應ずるなり。) 国文学研究資料館 제공 日本古典文学大系(旧)데이터베이스(岩波書店), 『日本靈異記』, 443쪽.

19) (“傳曰：[妖怪之物，自古有之，人有一乳生三子者，向有獻白牛者，予怪而却之，其時無言其怪者。]”)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조선왕조실록』 성종 25년 갑인(1494, 홍치7) 10월 9일(갑자).

20) 이연숙, 「한국과 일본의 고대문헌에 나타난 흰색 비교 연구」, 『비교문화』 59, 한국비교문화회, 2013, 170~172쪽.

21) (일본고전의 오방색 호랑이 6건 중 6건 100% / 한국고전의 오방색 호랑이 1237건 중 1171건 94.6%)

한편, 한국 고전에서는 흰 호랑이가 백호탕(白虎湯)과 같은 약재의 이름으로도 나타난다. 물론 이 약재에 흰 호랑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흰 석고를 약재로 썼을 뿐이다.<sup>22)</sup> 소청룡탕(小青龍湯)과 같은 한방 탕약의 이름 또한 같은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흰 호랑이에 관해서는 한일 양국 간의 특별한 상이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 4. 흰 토끼(白兔)

동아시아 불교문화권에서 흰 토끼는 대개 달을 상징하는 동물로 그려진다. 또, 중국의 『포박자(抱朴子)』에 서는 흰 토끼의 수명이 천 년이고 오백년이 차면 색이 희어지는데 이를 길조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중국에서는 흰 토끼가 상서로운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국 고전에서의 흰 토끼의 이미지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표 7〉 오방색 토끼 중 흰 토끼의 한일 분포비율<sup>23)</sup>

토끼	白兔	黑兔	赤兔	靑兔	黃兔
日本古典	2	0	0	0	0
韓國古典	80	12	78	4	57

한편, 일본고전에서는 흰 토끼가 착한 인간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이미지를 보이기도 한다. 악인에게는 실패를, 선인에게는 성공을 예지하는 이나바(因幡)흰 토끼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 즉, 이나바 흰 토끼는 악어에게 물려 가족이 벗겨진 자신에게 소금물로 씻으라고 해서 오히려 상처를 악화시킨 형 야소가미(八十神)에게는 청혼에 실패할 것이라 예언하고, 자신의 상처를 약으로 치료해 준 동생 오구니누시에게는 형 대신에 결혼하게 될 것을 예언한다.<sup>24)</sup> 오구니누시가 충성스러운 흰 쥐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진 이야기는 앞서서도 나왔지만, 흰 토끼에게서도 역시 협력을 얻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마음씨 나쁜 형한테 미움 받는 동생의 편에 서는 흰 토끼의 이러한 모습은 일본 전래동화 『가치가치야마(かちかち山)』에서 보이는 토끼의 정의로운 이미지와도 또한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한 할아버지를 도와 나쁜 너구리에게 복수하는 일본 동화속의 토끼가 흰 토끼로 흔히 그려지는 것은, 이나바 흰 토끼에게서 보이는 권선징악 해결사의 이미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점, 길조로서의 상징성만 가지는 중국 및 한국 고전에서의 흰 토끼 이미지와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22) (人參白虎湯, “治暑熱發渴, 脉虛. 人參·知母 各二錢, 石膏 半兩, 甘草 一錢. 右咬咀, 入粳米一撮, 煎. 雜著.”) 한국 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 > 의림촬요(醫林撮要) > 醫林撮要 卷之二 > 暑證門 七 附 暑風 >

23) (일본고전의 오방색 토끼 2건 중 2건 100% / 한국고전의 오방색 토끼 231건 중 80건 34.6%)

24) (倉野憲司, 武田祐吉 『古事記 祝詞』 日本古典文学大系(第1) 岩波書店, 1958, 92쪽. “此稻羽之素菟者也. 於今者謂菟神也. 故. 其菟白大穴牟遲神. 此八十神者. 必不得八上比賣. 雖負. 汝命獲之.”) 노성환, 「동아시아에서 본 <고사기> 이나바의 흰 토끼 설화», 『일어일본학연구』 85: 2, 한국일어일본학회, 2013, 379~401쪽.

5. 흰 용(白龍)

〈표 8〉 오방색 용 중 흰 용의 한일 분포비율<sup>25)</sup>

용	白龍(竜)	黒龍(竜)	赤龍(竜)	靑龍(竜)	黃龍(竜)
日本古典	4(5)	1(0)	4(0)	40(2)	4(1)
韓國古典	456	614	137	1224	1107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용은 왕 혹은 위대한 인물을 상징한다. 한고조(漢高祖)를 적룡(赤龍)으로 보거나,<sup>26)</sup> 쇼토쿠 태자(聖德太子)가 청룡이 끄는 마차를 타고 하늘을 날았다는 내용,<sup>27)</sup> 신사임당(申師任堂)이 울곡(栗谷)을, 정몽주(鄭夢周)의 모친이 정몽주를 임신하였을 때 흑룡(黒龍)이 날아들었다는 태몽 이야기,<sup>28)</sup> 그리고 죽어서 황룡(黃龍)이 되어 신라를 수호했다는 문무왕(文武王)전설<sup>29)</sup>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방색으로 용을 분류하는 발상은 동아시아에서 일찍부터 공유되어 왔다고 보인다.<sup>30)</sup> 오늘날 중국과 한국에서 행해지고

25) (일본고전의 오방색 용 59건 중 9건 15.2% / 한국고전의 오방색 용 3538건 중 456건 12.8%)  
 26) (“高祖以亭長為縣送徒鄴山，徒多道亡。自度比至皆亡之，到豐西澤中，止飲，夜乃解縱所送徒。曰：「公等皆去，吾亦從此逝矣！」徒中壯士願從者十餘人。高祖被酒，夜徑澤中，令一人行前。行前者還報曰：「前有大蛇當徑，願還。」高祖醉，曰：「壯士行，何畏！」乃前，拔劍擊斬蛇。蛇遂分為兩，徑開。行數里，醉，因臥。後人來至蛇所，有一老嫗夜哭。人問何哭，嫗曰：「人殺吾子，故哭之。」人曰：「嫗子何為見殺？」嫗曰：「吾，白帝子也，化為蛇，當道，今為赤帝子斬之，故哭。」人乃以嫗為不誠，欲告之，嫗因忽不見。後人至，高祖覺。後人告高祖，高祖乃心獨喜，自負。諸從者日益畏之。”) 한천초루(漢川草廬) 데이 터베이스 『史記』卷8 高祖本紀.  
 27) “次年、妹子、亦、唐ニ渡テ、衡山ニ行タリケルニ、前ニ有シ三人ノ老僧、二人ハ死ニケリ、今一人残テ語テ云ク、「去シ年ノ秋、汝ガ國ノ太子、靑龍ノ車ニ乗テ五百人ヲ随テ、東ノ方ヨリ空ヲ」山田孝雄, 『今昔物語集1』, 日本古典文学大系22, 岩波書店, 1959, 52쪽.  
 28) “흑룡이 승천한 지 팔십 년이 되었다네. / 黒龍冲天八十祀.” 명재유고(明齋遺稿) 명재유고 제2권 시(詩) 송담서원(松潭書院). 『명재유고(明齋遺稿)』에 보이는 이 시구에서 흑룡은 울곡을 지칭하며 그 이유를 번역자 양홍렬씨는 [주D-001]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울곡(栗谷) 이이(李瑀)가 서거한 지 80년이 되었다는 말이다. 울곡이 태어나던 날 밤에 그 어머니가 흑룡이 바다에서 침실로 날아 들어오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栗谷全書 卷33 附錄1 年譜上>” 한편, 정몽주의 경우도 어머니가 흑룡 태몽을 꾸었다고 보인다. 한국문집총간 > 포은집(圃隱集) > 圃隱先生集本傳 > 圃隱先生集本傳 “鄭夢周字達可。知奏事襲明之後。母李氏有娠。夢抱蘭盆忽墮。驚寤而生。因名夢蘭。生而秀異。肩上有黑子七。列如北斗。年至九歲。母夢黑龍升園中梨樹。驚覺出視。乃夢蘭也。因改夢龍。既冠改今名。”; 이 외에도 조선시대 위인 중에는 태몽에 흑룡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萬曆巳卯四月七日。生公。先是有黒龍夢家人而飛入室。” 한국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 송자대전(宋子大全) > 송자대전 제162권 > 신도비명(神道碑銘) > 포저(浦渚) 조공(趙公).  
 29) “신라 문무왕(文武王)의 묘는 계림(鷄林) 우단(雩壇)의 곁에 있다. 처음에 문무왕이 왜(倭)에게 곤욕을 겪었으므로 임종할 때에 유언하기를, “나를 바다 속에 장사하도록 하라. 용이 되어 왜를 막으리라.” 하였다. 그래서 바다 속에 작은 섬만 한 큰 바위가 있어서 그 바위에 장사하였는데, 얼마 안 가서 바람과 우레가 크게 일더니 황룡(黃龍)이 돌 위에 나타났다. 그로 인하여 그 대(臺)를 ‘이견대(利見臺)’라 하고 드디어 비 내리기를 비는 장소로 삼았다. 그 사실이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실려 있다. 뒤에 말을 갈다가 옛 비를 발견하였다. 이 비는 바로 문무왕의 비였는데, 대사(大舍)인 한눌유(韓訥儒)가 쓴 것이다. 그 글은 떨어져 나가서 차서(次序)가 없으나, “붉은 까마귀(赤烏)가 제앙을 드러내고 누런 꿈(黃鯢)이 이변을 나타내었다.” 한국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 임하필기(林下筆記) > 임하필기 제34권 > 화동옥삼편(華東玉繡編) > 동경(東京)의 고적(古蹟)에 대한 고찰.  
 30) “鼓舞五龍邪說。託於神農。自古以來。凡祈雨之法。多戲慢如此。” 한국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 목민심서(牧民心書) > 목민심서 예전(禮典) 6조 > 제1조 제사(祭祀). 주에 의하면 오룡을 고무시켜 비를 내리게 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실제로, 『신농구우서(神農求雨書)』에 의하면, 갑을일(甲乙日 - 1일, 2일, 11일, 12일, 21일, 22일)에 비가 오지 않으면 서울 동부지역의 소동(小童)을 청룡이라 명명(命名)하여 춤을 추게 하고, 병정일(丙丁日 - 3일, 4일, 13일, 14일, 23일, 24일)에 비

있는 장기에서 한나라 장기 말의 글자 색깔이 빨강인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

한편, 흰 용의 경우, 한일 양국고전에서는 자손번창이나 미래의 성공을 예지해준다는 점에서 유사한 상징성을 보인다. 조선을 개국한 이 성계(李成桂)의 조부인 도조(道祖)의 꿈 이야기가 대표적인데, 흰 용을 도와 검은 용을 물리쳤더니 흰 용이 감사를 표하며 후손이 잘 될 것이라 예언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sup>31)</sup> 그리고 이와 유사한 패턴의 이야기가 일본의 설화집인 『곤자쿠 모노가타리슈(今昔物語集)』 「신탄부(震旦部)」에 실린 이야기에서도 보인다. 사냥꾼이 청룡(靑龍)을 도와 적룡(赤龍)을 물리치고 그 보답으로 청룡한테 구슬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sup>32)</sup>

그리고 『헤이케 모노가타리(平家物語)』에서는 흰 용이 전투에서의 승리를 예지하는 내용이 보이는데, 미래의 행운을 예지해 준다는 점에서 한국의 흰 용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 하겠다. 즉, 『헤이케 모노가타리』 卷第七에 보이는 지쿠부시마 모우데(竹生島詣) 전설에서는 다이러노 쓰네마사(平經正)가 출정을 앞두고 비와호(琵琶湖)에서 비파를 쳐자 흰 용이 나타나 승리를 확신했다는 내용이 보이는 것이다.<sup>33)</sup>



〈그림 2〉 비파를 들고 있는 변재천

가 오지 않으면 서울 남부지역의 장년(壯年)을 적룡(赤龍)이라 명명하여 춤추게 하고, 무기일(戊己日 - 5일, 6일, 15일, 16일, 25일, 26일)에는 서울 중부지역의 장년을 황룡이라 명명하여 춤추게 하고, 경신일(庚辛日 - 7일, 8일, 17일, 18일, 27일, 28일)에는 서울 서부지역의 노인을 백룡(白龍)이라 명명하여 춤추게 하고, 임계일(壬癸日 -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 일명 손 없는 날)에는 서울 북부지역의 노인을 흑룡(黑龍)이라 명명하여 춤추게 하면 비가 내린다.”

- 31) “○度祖夢有告之者曰：[我白龍也。今在某處，黑龍欲奪我居，請公救之。]度祖覺以爲常而不異之。又夢白龍復來懇請曰：[公何以我言爲意? 且告之日。度祖始異之，至期，帶弓矢往觀之，雲霧晦冥，有白黑二龍，方鬪淵中。度祖射黑龍，一矢而斃，沈于淵。後夢白龍來謝曰：[公之大慶，將在子孫。]”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 태조실록 1권 > 총서 8번째 기사 > 조선 왕조 개국을 암시하는 도조의 꿈. 그리고 백룡이 조선왕조의 왕손의 탄생을 알리는 태몽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또한 보인다(상은 숙종의 둘째 아들이다. 탄생하기 3일 전에 붉은빛이 동방으로 뻗었는데, 그 색채가 영롱하고 흰 기운이 그 위에 서렸다. 이날 밤 궁인(宮人)이 백룡(白龍)이 보경당으로 날아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마침내 상이 탄생함에 오른쪽 팔에 용이 서려 있는 듯한 문늪가 9개나 있었다. 어려서부터 모든 행동거지가 마치 어른처럼 근엄하여 숙종께 나아가 뵈 때마다 무릎을 꿇고 꿇꿇이 앉았으며 물러나도록 명하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았다. 인현왕후(仁顯王后)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는데, 일찍이 뜰에 핀 갖가지 꽃을 따다가 손수 술을 빚어 왕후에게 드려자 왕후가 크게 칭찬하여 상을 준 적이 있었다. 이때 상의 춘추 겨우 5세였다). 고전번역서 > 국조보감(國朝寶鑑) > 국조보감 제57권 > 영조조 1 >
- 32) “其ノ時ニ、獵師ノ思ハク、[此ノ三日見ルニ、二日ハ既ニ靑龍負ヌ。彼レヲ助ケムガ爲ニ、赤龍ヲ射シテム]ト思テ、箭ヲ矯テ赤龍ニ指シ充テ、射ルニ、モ中ヲ射ツ。然レバ、赤龍、逃テ、海ノ中ニ入ヌ。此レニ依テ、靑龍、身平カニシテ、亦、海ノ中ニ、入ヌ。其後、見レバ、靑龍、海ノ中ヨリ出来レリ、玉ヲ陸ヲ指テ来ル。爰、獵師ノ思ハク、[靑龍、海ノ中ヨリ出。敵ノ射タルニ依、勝ツ事ヲ得タリ。此レ、我ガ恩ニ依テ也。然レバ、其ノ恩ヲ報ゼムガ爲ニ、寶珠ヲ持来テ、我レニ令得ムト爲ル也ケリ]ト心得テ、海邊ニ寄タレバ、靑龍、獵師ヲ見テ、弥ヨ近付キ来テ、玉ヲ陸ニ吐キ置テ海ノ中ヘ返リ入ヌ。其ノ時ニ、獵師、玉ヲ取テ家ニ返ヌ、其ノ後、諸ノ財心ニ任セテ出来テ乏キ事无シ。然レバ、家豊ニ成テ、財寶ニ飽キ満ヌ。” 山田孝雄, 『今昔物語集2』, 日本古典文学大系23, 岩波書店, 1960, 338쪽.
- 33) “御琵琶をまいらせたりければ、經正是をひき給ふに、上玄石上の秘曲には、宮のうちもすみわたり、明神感應にたへずして、經正の袖のうへに白龍現てみえ給へり。忝くうれしさのあまりに、なく++かうぞ思ひつゞけ給ふ。千はやふる神にいのりのかなへばやしるくも色のあらはれにける。されば怨敵を目前にたひらげ、凶徒を只今せめおとさん事の、疑なしと悦で、又船にとりの(ッ)て、竹生嶋をぞ出られる。” 高木市之助, 『平家物語 下』, 日本古典文学大系33, 岩波書店, 1960, 65쪽.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흰 용이 등장한 것은 쓰네마사가 칠복신 중 유일한 여신인 변재천(弁財天)(〈그림 2〉의 가운데)의 상징인 비파를 켜기 때문이며 비파처럼 생긴 호수인 비와호에서 비파를 켜으니, 변재천의 화신인 흰 용이 등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다른 이본(異本)에서는 흰 용 말고도 흰 뱀 또는 흰 여우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상징성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sup>34)</sup> 그리고 흰 색 동물들이 변재천 신앙과 결부되는 이 같은 현상은 비와호에 사는 흰 메기에게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지진을 일으킨 메기는 이세신의 사자인 흰 말에게 혼이 나지만, 변재천의 사자인 흰 메기는 그러한 부정적인 상징성을 걷어내는 것이다.

## 6. 흰 뱀(白蛇)

흰 뱀에 비해 푸른 뱀(靑蛇)이 한국 고전에서 유난히 많은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서슬이 시퍼런 칼을 창사로 비유하는 중국고전의 영향 때문이다. 일본인들이 하얗고 길쭉한 갈치를 칼(太刀) 같은 물고기(魚)라고 해서 다치우오(太刀魚)라 불렀던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표 9〉 오방색 뱀 중 흰 뱀의 한일 분포비율<sup>35)</sup>

뱀	白蛇	黒蛇	赤蛇	靑蛇	黃蛇
日本古典	9	0	0	5	0
韓國古典	39	26	19	215	30

그리고 조선 시대 때 어느 효자가 한 겨울에 백사(白蛇)를 잡아 약으로 썼다는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sup>36)</sup> 한국 고전에서는 흰 뱀이 건강을 돕는 귀한 보양약재로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뱀의 흰 색이 가지는 양기물(陽氣物)로서의 이미지 때문이며, 이러한 관념은 일본 고전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한국인들은 꿈에 용이나 돼지를 보면 길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인들은 흰 뱀을 보면 길하거나 부자가 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흰 뱀에 대한 일본인들의 이러한 이미지는 사당에서 흰 뱀을 본 사람에게 복이 들어 올 좋은 징조라고 이야기하는 『오소메 히사마쓰 우키나 요미우리(お染久松色説販)』의 다음 장면(이봐, 이봐, 거기에 큰 흰뱀이 나왔어. 아아, 기분 째짤한데. 그거 큰일이네. 하지만 흰 뱀을 모견보살(妙見菩薩)사당에서 보신 건 좋은 일이지요. 그건 정말로 복신이라구요.)<sup>37)</sup>에서도 또한 알 수 있다.

34) 鈴木あゆみ, 『語文論叢』 15, 千葉大学文学部, 1987, 20쪽.

35) (일본고전의 오방색 뱀 14건 중 9건 64.2% / 한국고전의 오방색 뱀 329건 중 39건 11.8%)

36) 예조가 서울과 지방의 효열 별단(孝烈別單)으로 아뢰었다. “고성(高城)의 공생(貢生) 장봉구(張鳳九)는 아버가 겨울에 병이 위중해졌는데 의원이 뱀을 약으로 써야 한다고 하자, 하늘에 빌고 울며 구하다가 눈 위에서 갑자기 백사(白蛇)를 얻었다. 또한 손가락을 잘라 입에 피를 흘려 넣어 10일 동안 목숨을 연장시켰다. : 정창순은 들어주지 말 것, 김노순은 음식물 제공, 신사운·이성원은 들어주지 말 것, 체제공은 음식물을 제공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국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 국역 일성록 > 정조 13년 기유(1789, 건륭 54) > 윤 5월 22일(정미) >.

그리고 이러한 일본인들의 미신은 변재천의 화신이 흰 뱀 또는 흰 용이라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 일본에서 흰색의 뱀가족 지갑이 재복을 상징하는 것도 실은 재복을 주관하는 변재천의 사자가 바로 흰 뱀 또는 흰 용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흰 뱀이 흰 용과 더불어 변재천과 연관된 것은 일본고전에서 용과 뱀이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며, 이는 『도조지 엔기에마키(道成寺縁起繪卷)』에 보이는 큰 뱀 기요히메(清姫)의 모습이 마치 용처럼 그려지는 경우나, 일본인들이 용같이 생긴 수도꼭지를 자구치(蛇口), 즉 뱀 입이라고 부르는 데서도 알 수 있다.

## 7. 흰 말(白馬)

한(漢)나라 명제(明帝)때 가섭마등(迦葉摩騰)과 축법란(竺法蘭)이 백마(白馬)에 불경(佛經)을 싣고 서역(西域)에서 왔다는 백마사(白馬寺)설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흰 말은 동아시아 고전에서 공통적으로 불교를 상징한다.

〈표 10〉 오방색 말 중 흰 말의 한일 분포비율<sup>38)</sup>

말	白馬	黒馬	赤馬	靑馬	黃馬
日本古典	60	24	5	12	0
韓國古典	3038	34	56	33	87

흰 말은 또한 한일 양국 모두에서 신에 대한 제사제물이라는 공통적인 상징성을 지닌다. 이는, 백제를 멸망시킨 당(唐)나라 장수 소정방(蘇定方)이 백제 무왕(武王)의 화신인 용을 잡기위해 흰 말을 제물로 썼다는 부여(扶餘) 백마강(白馬江) 전설을 비롯해,<sup>39)</sup> 신라와 백제의 왕이 회맹의 상징으로 천치신명에 대한 제사에서 흰 말의 피를 나눠 마셨다는 이야기,<sup>40)</sup> 그리고 신라와 왜의 화의에서 흰 말을 제물로 썼다는 일본의 백마총(白馬塚)전설<sup>41)</sup>이 그 좋은 예이다.

37) “彌忠「コレコレ、そこらへ大きな白ひ蛇が出たわへたわへ。新八「エ、氣味の悪い。そりゃとんだ事だ。しかし白蛇を妙見様で御覽じるとは、有難ひ事でござりまするハ。それは誠に福の神。” 浦山政雄, 『歌舞伎脚本集 下』, 日本古典文学大系54, 岩波書店, 1961, 181쪽.

38) (일본고전의 오방색 말 101건 중 60건은 59.4% / 한국고전의 오방색 말 3248건 중 3038건은 93.5%)

39) “昔余游京師，見人家壁上，畫一梟將，金盔鐵甲，臂纏鐵索一條，立水中巖石之上以釣龍，龍張口昂首，足據石不肯上，兩相奮力以血戰者。曰：[彼何狀也？] 曰：[昔蘇定方伐百濟，至白馬江，有神龍作大霧怪風，舟師不能渡。於是定方大怒，以白馬爲餌，釣其龍而殄之，然後霧卷風息，師得濟焉。此其圖也。]” 한국 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 여유당전서(定本 與猶堂全書) 文集 卷十四 記 釣龍臺記.

40) “麟德二年，與新羅王會熊津城，刑白馬以盟。仁軌爲盟辭，乃作金書鐵契，藏新羅廟中，盟辭見新羅紀中。”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三國史記』 卷第二十八 百濟本紀 第六 義慈王 唐 高宗 麟德二年.

41) “以戒後人云。岸上有所謂白馬塚。新羅時遣將征倭。倭人請和。刑馬以盟。仍埋其馬云矣。地屬長門州。而自此爲內洋。” 한국 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 해사일기(海槎日記) 海사일기(海槎日記) 2 12월 27日己酉.

흰 말이 가지고 있는 이 같은 제물로서의 상징성은 또한 일본의 신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에마(絵馬)에서도 나타나며, 우리나라의 상오일(上午)풍습에 해당하는 교토(京都)의 가미가모진자(上賀茂神社)의 제사(매년 1월 7일에 행해지는 제사에서 신전에 제물로 바쳐진 흰 말에게 7가지 나물을 먹이는 행사)에서도 또한 나타난다.

따라서 당연히 일본에서는 흰 말이 신마(神馬 しんま)로서의 성격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1855년 11월 11일에 일어난 안세이 대지진(安政大地震)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한테서 공통적으로 이세신(伊勢神)의 사자인 흰 말의 흰 갈기털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을 그림으로 표현한 나마즈에(鯰絵)<sup>42)</sup>는 그 좋은 예이다.

물론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징성은 보인다. 경주 천마총(天馬塚)의 천마도(天馬圖)가 그러하다.<sup>43)</sup> 즉, 한국에서는 죽은 사람이 타고 하늘로 날아가는 신승물(神乘物), 즉 천마(天馬)로서의 상징성이 흰 말에는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일본고전에서는 흰 말이 신의 사자이자 신이 타는 말이지만 한국에서는 망자가 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타는 사후의 말이라는 차이점이 보인다.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흰 말의 이러한 상징성은 중국 고전에서도 확인된다. 후한(後漢)의 범식(范式)이 장소(張邵)와 절친한 벗이었는데, 장소가 죽어 장례를 치르는 날 상여가 움직이지 않다가 천 리 밖에 있던 범식이 백마(白馬)가 끄는 소거를 타고 이르러 조문하자 상여가 비로소 움직였다는 고사가 그것이다.<sup>44)</sup>

한편, 흰 말은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미리 알리는 전조로서의 상징성도 보인다. 예를 들어 『삼국유사(三國遺事)』 권1 「紀異篇」 혁거세왕조(赫居世王條)에는,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날 때 흰 말 한 마리가 꿇어앉아 알에 절을 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보인다.<sup>45)</sup> 따라서 흰 말은 죽은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때 타기도 하지만, 거꾸로 하늘의 천인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 타는 말이기도 한 것이다. 흰 말은, 서양의 동화에서는 왕자가 타는 말이겠지만, 중국에서는 문상 갈 때 조문객이 타는 수레를 끄는 말이며, 한국에서는 위대한 인물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타는 말이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진으로부터 인간을 구해주는 신의 사자라는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양국 간에 상징성의 차이가 보이는 경우도 물론 있다. 고려 말기의 요승 신돈이 몸 건강을 위해 흰 말과 검은 닭(오골계)을 먹었다는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sup>46)</sup> 한국에서는 흰 말이 양기를 제공하는 보양식품으로서의 상징성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이 점은 일본에서의 흰 말의 상징성과는 구별되는 차이점이 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양기물(陽氣物)로서 관념화 한 말의 상징성에 대한 표인주씨의 다음 언급이

42) 박병도, 「나마즈에(鯰絵)에 나타난 일본의 지진신앙과 그 변모」, 『역사 민속학』 40, 한국역사민속학회, 2012, 226~227쪽.

43) 표인주, 「말의 민속적인 관념과 신앙의 의미」, 『한국학연구』 51,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294~297쪽.

44) “世說)范式字巨卿。與張邵爲死友。邵死。式夢。邵呼曰。吾某日死。某日葬。式馳赴之。未至而喪已發。將至壙。柩不肯進。移時。見有素車白馬號哭而前。其母曰。必巨卿也。式因執紼引。柩乃前。” 한국 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 한국문집총간 > 퇴계집(退溪集) > 退溪先生文集攷證卷之七 > 第四十五卷祝文祭文 > 서울대학교 규장각본.

45) “楊山下蘿井傍 異氣如電光垂地 有一白馬跪拜之狀 尋檢之 有一紫卵.”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1 紀異篇.

46) “辛旽方用事。淫穢日甚。公嘗於廣坐謂之曰：[人謂公酒色過度。旽不悅。尋罷之。旽性畏吠犬。且惡射獵。又縱淫。殺烏鷄白馬。以助陽道。人謂老狐精。] 한국 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 > 제정집(齊亭集) > 齊亭集 卷四 > 追錄 > 海東雜錄. 조선고서간행회본(朝鮮古書刊行會本) <<대동야승(大東野乘)>>.

좋은 대답이 된다.

즉, 표인주씨는 말이 다른 동물과는 달리 활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삶의 에너지가 충만한 동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음양오행(陰陽五行)의 관념에 따라 양기(陽氣)가 강한 동물로 인식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혼례 식에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갈 때 백마를 타고 가는 풍속도 이러한 남성성의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sup>47)</sup> 그리고 이는 앞에서 소개한 흰 뱀에 대한 양기물로서의 이미지와도 유사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왜 한국에서는 흰 말과 백사, 그리고 오희계와 흑염소가 양기물로서 인식되어왔는지 궁금해지는데, 여기에는 흰 색과 검은 색이 가지는 벽사의 힘이라는 의미가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이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에 나타난 신라인의 색채 의식과 그 상징성을 다룬 이 순희씨의 논문을 참조 바란다.<sup>48)</sup>

### 8. 흰 양(白羊)

『동사강목(東史綱目)』에 백양고(白羊膏)로 불제(祓除 - 재앙을 쫓는 것)하였다라는 기사가 보이는데,<sup>49)</sup> 이는 북방 유목민족의 풍습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양을 보기 힘들기에 흰 양에 대한 중국고전의 기술이 한국고전에 인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의 『술이기(述異記)』에, 나무의 정령(精靈)이 화해서 청양(靑羊)이 되는데, 백 년 뒤에는 홍양(紅羊), 또 백 년 뒤에는 황양(黃羊), 오백 년 뒤에는 창양(蒼羊), 또 오백 년 뒤에는 백양(白羊)이 된다는 기사가 보인다.<sup>50)</sup> 흰 양이 가장 으뜸인 것이다.

〈표 11〉 오방색 양 중 흰 양의 한일 분포비율<sup>51)</sup>

양	白羊	黑羊	赤羊	靑羊	黃羊
日本古典	0	2	0	0	0
韓國古典	181	26	7	50	32

47) 표인주, 앞의 논문, 297~299쪽.

48) 「이때 당나라 제실(帝室)의 공주가 병이 있어 고종(高宗)은 삼장에게 치료해 달라고 청하자 삼장은 자기 대신 혜통을 천거했다. 혜통이 명을 받고 탄 곳에 거처하면서 흰 공 한 말을 은 그릇(銀器) 속에 넣고 주문을 외니, 그 공이 변해서 흰 갑옷을 입은 신병(新兵)이 되어 귀신을 쫓았으나 이기지 못했다. 이에 다시 검은 공 한 말을 금 그릇(金器)에 넣고 주문을 외니, 공이 변해서 검은 갑옷 입은 신병(新兵)이 되었다. 두 빛의 신병이 힘을 합하여 병마를 쫓으니 갑자기 도룡뇽이 나와 달아나고 공주의 병이 나았다.」 - 「〈신주(神呪)〉 제6, 혜통(惠通)의 황룡(降龍)」 '흰 공'과 '검은 공'은 당나라 제실의 병든 공주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는 치유(治癒)의 기능과 벽사(辟邪)의 기능을 담당하는 초월적 존재물을 상징한다. 동일한 공이 흰색과 검정색에 의하여 기능의 정도가 다르게 표현된다는 사실에서 당시 신라인들의 색채의 신성성에 대한 분간의식이 매우 명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삼장과 연결되는 혜통이 흰공과 검은 공의 주체라는 것은 곧 당시의 색채가 불교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순희, 「삼국유사에 나타난 신라인의 색채 의식과 색채 상징성 연구」,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23: 1, 2009, 168쪽.

49) 고전종합 데이터베이스 > 고전번역서 > 동사강목(東史綱目) > 동사강목 제11하 >

50) 淵鑑類函 卷436 羊1.

51) (일본고전의 오방색 양 2건 중 0건 0% / 한국고전의 오방색 양 296건 중 181건 61.1%)

한편, 일본고전에서는 흰 양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중세설화집인 『우지슈이모노가타리(宇治拾遺物語)』 제167화에 목과 등이 하얀 푸른 양이 등장한다.<sup>52)</sup> 전생에 부모의 재물을 몰래 훔친 딸이 양으로 환생하여 그 업보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이는 중국 설화가 일본에 전래된 경우라 할 수 있다. 흰 양의 경우, 한일 양국의 전통적인 상징성의 비교가 곤란했다.

### 9. 흰 원숭이(白猿)

중국고전에서는 백원공(白猿公) 혹은 백원옹(白猿翁)이라 하여 흰 원숭이는 대개 검술의 명인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는 춘추 시대 월인(越人) 처녀가 월왕(越王)에게 검술을 가르치러 길을 가던 도중에 흰 원숭이(白猿)가 사람으로 변신한 원공(袁公)과 검술대결을 하였다는 전설 때문이다. 한국 고전에서도 흰 원숭이는 대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표 12〉 오방색 원숭이 중 흰 원숭이의 한일 분포비율<sup>53)</sup>

원숭이	白猿	黒猿	赤猿	靑猿	黄猿
日本古典	12	2	1	0	0
韓国古典	111	2	11	35	25

한편, 일본에서는 흰 원숭이가 불교 수행자를 보호하는 존재로서의 상징성을 보이는 전설이 보인다. 흰 원숭이들이 니치렌(日蓮)스님에게 음식을 공양했다거나, 스님이 마을사람들의 습격을 받았는데, 머물던 암자가 불태워지기 직전에 흰 원숭이 3마리가 나타나 니치렌을 동굴로 통하는 길로 탈출시켰다는 엔바쿠산(猿島山) 법성사(法性寺)의 전설이 바로 그러하다.<sup>54)</sup> 그리고 이 이야기는 불에 타 죽게 된 오구니누시(大国主)를 흰 쥐가 구해줬다는 앞에서의 이야기를 의식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중국 도교에서 유래한 고신(庚申)신앙과 히요시 신사(日吉神社)의 흰 원숭이를 연결시키는 발상이

52) 『宇治拾遺物語』 一六七「ある唐人、女の羊に生たる知らずして殺す事」卷一三ノ七(その母が夢にみる様、うせにしむすめ、青き衣をきて、白きさいでして、頭をつゝみて、髪に、玉のかんざし一よそひをさしてきたり。生きたりし折にかはらず。母にいふやう、「我生きて侍し時に、父母、われをかなうし給て、よろづをまかせ給へりしかば、親に申さで、物をとりつかひ、又人にもとらせ侍き。ぬすみにはあらねど、申さでせし罪によりて、いま羊の身をうけたり。きたりて、その報をつくし侍らんとす。あす、まさにくび白き羊に成て、殺されんとす。ねがはくは、我命をゆるし給へ」といふとみつ。△おどろきて、つとめて、食物する所を見れば、まことに青き羊の、くび白きあり。はぎ、背中白くて、頭に、ふたつのまだら有。) 国文学研究資料館 제공 日本古典文学大系(旧)데이터베이스(岩波書店), 『宇治拾遺物語』, 370-371쪽.

53) (일본고전의 오방색 원숭이 15건 중 12건 80% / 한국고전의 오방색 원숭이 184건 중 111건 60.3%)

54) 相傳フ、日蓮鎌倉へ始テ来ル時、此山ノ岩窟ニ居ス。諸人未ダ其人ヲ知事ナシ。賤ミ憎テ一飯ヲモ不送。其時此山ヨリ猿ドモ羣リ来テ畑ニ集リ、食物ヲ營テ日蓮へ供ジケル故ニ名クト云フ。其後日蓮猿ドモノ我ヲ養ヒシ事ハ山王ノ御利生ナリトテ、此山ノ南ニ法性寺ヲ建立シ猿島山ト號ス。今ハ妙本寺ノ末寺ナリ。와세대대학 도서관 「新編鎌倉志」 「新編鎌倉志十一」、早稻田大学古典籍総合データベース請求記号：ル04\_04202\_0011  
http://ameblo.jp/miuravillage/entry-11526380571.html(2017.1.6)

에도시대에 유행하였는데, 이는 고신의 ‘신(申)’이 ‘원숭이(申)’와 발음이 같기 때문이다. 물론, 고신 신앙에서 원숭이가 흰 색인 것은 신의 사자이기 때문이다.<sup>55)</sup>

참고로, 니치렌을 구해 준 흰 원숭이가 3마리인 이유는, 인간의 머리, 배, 다리에 숨어 있다가 경신일 밤에 하늘로 올라가 천제에게 그 인간의 죄를 알린다는 세 마리 벌레(三尸の虫)를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세 마리 원숭이를 「보지 않고(見ざる 미자루)」 「듣지 않고(聞かざる 기카자루)」 「말하지 않는다(言わざる 이와자루)」라고 표현한 것도 원숭이의 일본어 발음인 ‘사루(さる)’와 유사한 ‘자루(ざる)’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시집 살이를 나타내는 표현인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 병어리 3년’을 연상하면 되겠다.

## 10. 흰 닭(白鷄)

한일 양국 고전에서 흰 닭은 귀한 인물의 탄생을 예지한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일치한다. 예를 들어, 황금 상자 안에 신라 김 씨의 시조인 김알지가 있었고, 흰 닭이 그 황금 상자 아래에서 울고 있었다는 내용이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보인다.<sup>56)</sup> 신라의 천 년 수도였던 경주가 계림(鷄林)이라 불렸다는 역사적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흰 닭 역시 흰 말이나 흰 용과 마찬가지로 위인의 탄생을 예지하는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오방색 닭 중 흰 닭의 한일 분포비율<sup>57)</sup>

닭	白鷄	黒鷄	赤鷄	靑鷄	黃鷄
日本古典	2	0	0	0	0
韓國古典	167	9	34	10	260

그리고 위대한 인물의 탄생과 흰 닭을 연관시킨 예는 일본고전에도 보인다. 예를 들어, 『헤이케 모노가타리(平家物語)』 卷8에는, 집안에 황후가 나오기 위해서는 흰 닭 천 마리를 키우라는 내용이 보인다.

노부타카경(信隆卿)의 따님이 여럿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황후로 만들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데, 흰 닭을 천 마리 기르면 그 집에서 반드시 황후가 나온다는 말이 있다고 해서 흰 닭 천 마리를 갖추어서 길렀더니, 그 따님이 황자를 많이 낳게 되었다.<sup>58)</sup>

55) 흰 원숭이가 길안내자로서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은 교토지역의 3대 고신(庚申)신앙신사 중 하나인 사루다히코 신사(猿田彦神社)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 이곳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고신당인 야사카 고신도(八坂庚申堂)가 있다.

56) 「脱解尼師今 九年春三月」 “九年, 春三月, 王夜聞金城西始林樹間有鷄鳴聲. 遲明遣瓠公視之, 有金色小檜掛樹, 枝白雞鳴於其下. 瓠公還告, 王使人取檜開之. 有小男兒在其中, 姿容高偉. 上喜謂左右曰, [此豈非天遣我以令胤乎.] 乃收養之. 及長, 聰明多智略, 乃名闕智. 以其出於金檜, 姓金氏. 改始林名雞林, 因以爲國號.”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三國史記』 卷第一 新羅本紀 第一.

57) (일본고전의 오방색 닭 2건 중 2건. 한국고전의 오방색 원숭이 480건 중 167건 34.7%)

58) “信隆卿御娘あまたおはしければ, いかにもして女御后にもなしたてまつらばやとねがはれけるに, 人のしろい鷄を千かうつれば, 其家に必后いできたるといふ事ありとて, 鷄の白いを千そろへてかはれたりける故にや, 此御娘皇子あまたうみまいらせ

한편 중국 고전에서는 흰 말이나 흰 개가 죽음을 상징하는 경우가 보이는데, 흰 닭도 예외는 아니다. ‘꿈에 흰 닭을 봤다. (夢白鷄)’라는 표현이 중국의 『진서(晉書)』 권79 「사안열전(謝安列傳)」에 보이는데, 이것은 죽음의 징조를 의미하는 것이다.<sup>59)</sup> 죽음에 대한 상징성보다는 인간의 탄생과 출세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한일 양국의 흰 닭은 중국과 다른 공통점을 지닌다고 하겠다.

### 11. 흰 개(白犬)

한국인에게 있어서 흰 개는 벽사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흰 개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다는 민속신앙 때문이다. 삼목구나 삼죽구, 또는 방상시를 의식한 귀신 쫓는 네눈박이 개가 흰 개로 그려지는 경우는 모두 이를 의식한 때문이다.

〈표 14〉 오방색 개 중 흰 개의 한일 분포비율<sup>60)</sup>

개	白犬(狗)	黒犬(狗)	赤犬(狗)	靑犬(狗)	黃犬(狗)
日本古典	9	4	13	0	0
韓國古典	43(43)	17(10)	5(10)	2(5)	121(56)

실제로 한국과 중국에서는 흰 개가 주술치료 내지는 의료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경우가 흔히 보인다. “귀신에게 맞아서 온갖 방법으로도 치료되지 않을 경우, 털빛이 흰 개의 피 한 흡을 뜨겁게 데워 마신다(又鬼神所擊, 諸術不治, 取白犬血一合, 熱飲之.)”라는 내용이 우리나라의 『구급이해방(救急易解方)』 「중악(中惡)」 부(附) 졸사(卒死)에 보이는 것이다. 또, “백구(白狗)의 젖을 취하여 눈 속에 넣어주면 10년 된 청맹(靑盲)도 치유된다(白狗乳汁. 取注目中. 治十年靑盲.)”는 내용이 송나라의 대표적인 본초학 의서인 『증류본초(證類本草)』에는 보이는데, 이 말대로 시행했다가 오히려 시력을 상실한 경우도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sup>61)</sup>

한편, 흰 닭의 예와 마찬가지로, 흰 개가 죽음을 상징하는 경우를 중국고전에서는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죽기 1년 전에 흰 개를 보게 될 것을 친구에게 예언한 『삼국지(三國志)』 「주건평전(朱建平傳)」의 경우가 그러한데, 중국에서는 흰 개가 죽음을 예고하는 불길한 존재로 나타나기도 한다.<sup>62)</sup> 그리고 이러한 측면은 중국

給へり。”高木市之助, 『平家物語 下』, 日本古典文学大系 33, 岩波書店, 1960, 121쪽.

59) “雞夢 案謝安寢疾曰. 吾昔夢白雞. 今歲在西. 殆不起乎. 尋卒.” 한국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 한국문집종간 > 퇴계집(退溪集) > 退溪先生文集攷證卷之三 > 第五卷詩 > 挽權同知,

60) (일본고전의 오방색 개 26건중 9건 34.6% / 한국고전의 오방색 개 312건 중 86건 27.5%)

61) “강화 유수(江華留守) 김시양(金時讓)이 두 번째 상처하기를, “삼가 아립니다. 신의 안질(眼疾)은 현재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중략) 왼쪽 눈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른쪽 눈도 전보다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대개 사람들의 말을 잘못 듣고 백구(白狗)의 젖을 자주 눈에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江華留守金時讓再劄, 伏以, 臣之眼疾, 方到十分地頭, (중략) 則左目全不視物, 右眼亦比前加重, 蓋緣誤聽人言, 以白狗乳頻頻點眼, 以至於此也.” 한국고전종합 데이터베이스 승정일기 > 인조 13년 을해(1635, 승정8) > 1월 29일(경진).

62) “君六十二位爲常伯, 而當有厄, 先此一年, 當獨見一白狗, 而旁人不見也.” 漢川草廬 데이터베이스 三國志 卷二十九·魏書二

에서 흰 말과 흰 닭이 보이는 죽음의 상징성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흰 개가 주군에 대한 충성심과 재복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종종 그려진다. 예를 들어, 『니혼쇼키(日本書紀)』에서는 주인 요로즈(萬)가 전장에서 죽자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굶어 죽은 흰 개가 등장한다(여기에 요로즈(萬)가 키우던 흰 개가 있었다. 몸을 숙였다 뒤집었다 하며 주인의 시신 곁을 돌며 짖는다. 결국 주인의 머리를 물어 올려 무덤에 놓고는 그 옆 머리맡에 엎드리고는 굶어 죽었다.).<sup>63)</sup>

흰 개가 보이는 이 같은 충성스러운 이미지는, 이 외에도 산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야마토 다케루노 미코토(日本武尊)의 길 안내를 하였다는 흰 개의 전설이나,<sup>64)</sup> 목욕하러 하늘에서 내려 온 선녀의 날개옷을 주인의 명에 따라 훔쳐 왔다는 일본의 ‘날개 옷 전설(羽衣伝説)’속의 흰 개 이야기에서도 확인된다.<sup>65)</sup> 죽어 서까지 주인이었던 할아버지에게 재복을 안겨 준 개의 이야기를 다룬 일본 전래 동화 『꽃 피우는 할아버지(花咲か爺さん)』에서 이 개가 흰 색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 것 역시 흰 개가 갖는 이 같은 전통적인 상징성 때문이다. 한국의 흰 개가 귀신과 죽음에 대한 인간의 공포를 없애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일본의 흰 개 역시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충성스러운 인간의 조력자로서의 상징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겠다.

## 12. 흰 멧돼지(白猪)

한국 고전에서는 연도를 십이간지로 나타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흰 멧돼지의 용례를 찾기 어려웠다. 일본 고전에서도 『니혼쇼키(日本書紀)』에 보이는 시라이노미야케(白猪屯倉)같은 지명에 흰 멧돼지가 들어가는 용례가 대부분으로, 동물로서의 예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일본 고대신화집인 『고지키(古事記)』에는 야마토 다케루노 미코토(日本武尊)가 자신이 잡은 흰 멧돼지가 악신(惡神)이 멧돼지로 변신한 것이라 말하는 장면이 보인다.

〈표 15〉 오방색 멧돼지 중 흰 멧돼지의 한일 분포비율<sup>66)</sup>

(멧돼지)	白豚(猪)	黒豚(猪)	赤豚(猪)	青豚(猪)	黄豚(猪)
日本古典	0(21)	0	0(22)	0	0
韓国古典	1(4)	0(12)	0(13)	0(4)	0(10)

十九 方技傳第二十九.

63) “爰有萬養白犬。俯仰廻吠於其屍側。遂嚙學頭、收置古冢。橫臥枕側、飢死於前。”坂本太郎, 『日本書紀 下』, 日本古典文学大系 68, 岩波書店, 1967, 167쪽.

64) “王異びたまひて、一箇蒜を以て白き鹿に彈けつ。則ち眼に中りて殺しつ。爰に王、忽に道を失ひて、出づる所を知らず。時に白き狗、自づからに來て、王を導きまつる状有り。狗に隨ひて行でまして、美濃に出づること得つ。”坂本太郎, 『日本書紀 上』, 日本古典文学大系67, 岩波書店, 1967, 308쪽.

65) “この余呉の湖に白鳥の姿で舞い降りた八人の天女が水浴びをしていたところ、この土地に住む伊香刀美(いかとみ) という男が天女に恋を抱き、柳の木に掛けてあった羽衣を一枚だけ白犬に盗み取らせた。”『帝王編年記』養老7年(723年)条.

66) (일본고전의 오방색 멧돼지 43건 중 21건 48.8% / 한국고전의 오방색 멧돼지 44건 중 5건 11.3%)

“이 흰 멧돼지로 변신한 것은 그 신의 사자이다. 지금 죽이지 않더라도 돌아갈 때 죽여야지.”하고 말하고는 앉았다. 여기에 큰 빙우를 내려 아마토노 다케루노 미코토를 쳐서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미코토는 말했다. “이 흰 멧돼지로 변한 것은 그 신의 사자가 아니라 그 신 자신인 것을 말로 밝히기 곤란하여 이렇게 빙우(氷雨)를 내려 알린 것이다.”<sup>67)</sup>

한편, 일본의 『노리토(祝詞)』 「기넨사이(祈年祭)」에는, 천황이 신에게 올리는 제사에서 백마(白馬)·백저(白猪)·백계(白鷄)를 바쳤다는 내용이 보이는데, 이것으로도 흰 멧돼지가 보이는 신과의 연관성을 또한 확인할 수 있다.<sup>68)</sup>

### Ⅲ. 상징성의 상이와 그 배경

이상으로 한일 양국의 고전에 등장하는 흰색 동물의 상징성을 살펴보았는데, 양국 간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상이점 또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공통점의 경우는 중국고전 혹은 불교경전에서 나타나는 흰 색 동물에 대한 관념이 그대로 전해진 경우라 할 수 있지만, 상이점의 경우, 각 문화권의 특징과 결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흰 색 십이지 동물 상징성에서 보이는 양국 간의 공통점 및 상이점을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16〉

	한국고전	양국고전공통	일본고전
흰 쥐	흰 쥐 가죽	-	다이코쿠덴의 사자 재복을 가져다 주는 동물 주인을 구하는 조력자
흰 소	흰 소가죽, 괴이함	불교적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동물	주인을 구하는 조력자 <sup>69)</sup>
흰 호랑이	백호탕, 백호술잔, 백호문, 백호관 백호통, 백호기	무신, 서쪽	
흰 토끼	흰 토끼뿔, 흰 토끼 가죽 백토마(적토마)	달 토끼(옥토끼)	오구니누시의 결혼을 예언 조력자, 권선징악해결사
흰 용	자손의 출세를 예지	-	변재천의 사자, 승리를 예지
흰 뱀	양기물, 진시황(백사)	-	변재천의 사자, 재복을 상징

67) “於是詔、茲山神者、徒手直取而、騰其山之時、白猪逢于山邊。其大如牛。爾爲言擧而詔、是化白猪者、其神之使者。雖今不殺、還時將殺而騰坐。於是霽大氷雨、打惑倭建命。此化白猪者、非其神之使者、當其神之正身、因言擧見感也。故、還下坐之、到玉倉部之清泉以息坐之時、御心稍寤。故、號其清泉、謂居寤清泉也。” 倉野憲司, 武田祐吉 『古事記祝詞』 日本古典文学大系(第1) 岩波書店, 1958, 19쪽.

68) “御年皇神前、白馬・白猪・白鷄、種種色物備奉、皇御孫命宇豆幣帛、稱辭竟奉宣。” 倉野憲司, 武田祐吉, 『古事記祝詞』, 日本古典文学大系(第1), 岩波書店, 1958, 386쪽.

	한국고전	양국고전공통	일본고전
흰 말	위대한 인물의 탄생과 죽음을 알리는 전조, 양기물	신에 대한 제물 신승물	이세신의 사자 지진으로부터 인간을 구함
흰 양	벽사용 양 기름	-	-
흰 원숭이	백원공(검객)	-	불법 수행자의 조력자 가부키 배우이름
흰 닭	위대한 인물의 탄생과 죽음을 알리는 전조	신에 대한 제물	자손의 출세를 예언
흰 개	귀신을 쫓는 벽사 눈병 치료약, 죽음을 알리는 전조	-	야마토다케루노 미코토의 조력자 충성스러운 부하
흰 멧돼지	좋은 날씨 <sup>70)</sup>	신에 대한 제물	신의 화신(惡神)

먼저, 흰 색 및 흰 색 동물에 대한 양국고전에서 전통적인 상징성과, 흰 색 십이지 동물로 한정했을 때의 상징성의 상이점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고전에서 흰 새가 왕의 죽음을 상징하거나 일본고전에서 아마토 다케루노 미코토가 백조가 되어 날아갔다는 이야기에서 보듯, 흰 색 조류가 왕의 영혼 또는 신의 화신을 상징하는 존재로 그려지는 것은 이미 소개한 바와 같다. 그리고 흰색 십이지 동물로 그 범위를 좁혔을 때 상서로운 전조 내지는 행불행에 대한 예지 능력으로서의 상징성을 보이는 동물도 물론 있다. 한국 고전에서의 흰 말과 흰 개, 흰 용, 흰 닭이 그러하며, 일본 고전에서의 흰 토끼와 흰 용, 흰 닭이 그러하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들 동물들이 보여주는 흰 색의 상징성에 대하여 우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김은경, 김영인씨는, 한국인의 흰색 상징에 대하여 태양승배의 원시 신앙과 삼국 및 고려시대의 불교신앙, 그리고 조선시대의 유교신앙이 융합된 신성한 색, 상서로운 색, 정신적 영역의 색, 자연 그대로의 색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흰 색을 나타내는 ‘희다’의 어원이 ‘해’와 관련이 있으며 하늘에서 환웅이 태백산(백두산)에 내려 왔다는 원시 강림신화를 들어 우리 민족의 흰 색에 대한 애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sup>71)</sup>

그리고 이 연속씨는 박혁거세왕 탄생설화에 등장하는 흰 말과 김알지 탄생설화의 흰 닭이 백일(白日), 즉 하늘의 하얀 해에 대한 승배의식과 관련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sup>72)</sup> 일본인들이 우리처럼 하얀 해를 의식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흰 닭이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예지한다는 측면에서 양국은 공통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69) 고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 학문의 신으로 숭상되는 스가와라노 미치자네(菅原道真)가 좌천되어 규슈로 갈 때 흰 소가 도왔다거나, 그의 장례식 때 소가 멈춘 곳에 묘소를 차렸다는 전설이 다자이후 덴만구(太宰府天満宮)에 오늘날도 전해지고 있다.

70) 참고로, 흰 멧돼지가 빙우를 내렸다는 이 같은 날씨관련 내용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전가오행(田家五行)에 대한 변증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흑저(黑猪)가 은하수(銀河水)를 건너가면 큰비가 내린다.”라는 표현이 그것인데, 이때의 흑저(黑猪)는 검은 구름, 즉 흐린 날씨를 상징한다.

71) 김은경·김영인, 『한국인의 흰 색 상징』, 『한국색채학회논문집』 20: 4, 한국색채학회, 2006, 29~30쪽.

72) 이연숙, 『한국과 일본의 고대문헌에 나타난 흰색 비교 연구』, 『비교문화』 59, 한국비교문화학회, 2013, 171쪽.

또 흰 용의 경우, 양국 모두 전투와 승리라는 공통 키워드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발상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의 흰 말과 흰 개, 흰 닭이 죽음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양국 간의 상이점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이 재선씨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흰 색은 죽음과 공포를 상징하는 양면성을 보이며,<sup>73)</sup> 이 점은 본고에서도 이미 확인한 바와 같다.

그리고 이는 죽음을 흰 색과 결부시키는 중국인의 관념이 유입된 결과에 다름 아니다. 흰 색이 죽음과 결부된 이유에 대해서는 고대 중국에서 사형수를 주로 가을(서쪽, 白)에 처형했으며 장례를 백사(白事)라 부르고 고대 한어에서 이를 ‘一命婦西 魂婦西天’으로 표현했다는 조 희무씨의 지적을 참고할 만하다.<sup>74)</sup>

겨울(검은 색)과 가을(흰 색)은 주로 음의 세계를 나타내므로 흉례에 사용되었고 상복이 흰 색 또는 검은 색인 것도 물론 이 때문이다.

다만, 겨울도 있는데 왜 굳이 가을의 흰색을 죽음과 결부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지만, 이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과의 대응이 아닐까 싶다. 즉 풀이 소생하는 푸른 봄에 대해, 낙엽이 지는 계절이라는 가을의 측면이 그것이다. 물론, 동쪽에서 뜬 해가 서쪽에서 진다는 생멸과 성쇠의 자연법칙을 의식한 탓도 분명 있을 것이다.

김 은경, 김 영인씨는 또한, 금줄과 부정 곳에 쓰이는 신 같은 흰 종이, 그리고 소금의 흰 색과 장례식 때 관위에 올려놓는 흰 닭의 예를 들어 흰 색이 가지는 벽사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탄생과 죽음에 관련된 한국고전에서의 흰 개와 흰 닭의 상징성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sup>75)</sup>

아무튼, “아침에 흰 말을 보면 돈이 생긴다.”거나, “흰 산새가 나타나면 큰 풍년이 든다.”는 한국 속담에서 보이는 흰색 동물의 긍정적 상징성과 “흰 나비를 먼저 보면 상제가 된다.”거나, “흰 개꼬리 굴뚝에 3년 두어도 흰 개꼬리다.”와 같은 부정적 상징성이 우리문화에서는 늘 병존해 왔음을 알 수 있다.<sup>76)</sup>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는 흰 색 동물이 가지는 희소성이 긍정적인 특별함 또는 부정적인 괴이함의 양면으로 받아들여진다. 부정적인 괴이함은 세종대왕이나 성종의 언급에서 이미 소개한 바와 같으며 중국에서 흰 색 동물이 죽음을 예지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흰색 동물은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예지하기도 하고 사람의 죽음을 예지하기도 한다는 생사길흉의 양면성을 모두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과 구별되는 또 한 가지 특징은 한국인들은 흰 색 십이지 동물에 대해 양기물로서의 이미지를 갖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흰 색이 곧 해의 양기를 상징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흰 색 동물을 식용함으로써 그 흰 색에 내재되어 있는 양기를 취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인의 이러한 인식은 비단 흰 색 동물에 그치지 않고, 백삼(흰 색 인삼을 홍삼과 구별하여 부른 이름)과 백수오, 백도라지 같은 흰 색 약재에서도 또한 엿볼 수 있다. 1855년(철종 6년) 12월 초, 북경에 갔던 종사관 서 경순이 중국 문인 주당(周棠)과 인삼에 관해 나눈 대화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73) 이재선, 「한국문학과 색채론」, 『한국문학의 주제론』,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1, 165쪽.

74) 조희무, 「漢語色彩語研究」, 『中國人文科學』 34, 중국인문학회, 2006, 132쪽.

75) 김은경·김영인, 앞의 논문, 32~33쪽.

76) 박선혜·권영걸, 「한국 속담에 나타난 서민의 색채의식 연구」, 『한국색채학회논문집』 19: 3, 한국색채학회, 2005, 5쪽.

“산삼이나 종삼(種蔘)이나 빛깔이 희고 모양도 같습니다. 그러나 사행(使行) 때 매매하는 인삼도 모두 밭에 심는 것으로 여러 차례 찌고 말리고 하면 빛깔이 저절로 붉고 윤택해집니다. 그런데 홍삼은 약의 힘이 백삼(白蔘)보다 조금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오로지 백삼만을 사용하는데, 중국은 백삼을 놓아두고 홍삼을 취택하니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하였다.<sup>77)</sup>

오늘날에는 홍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지만 19세기 중엽만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홍삼이, 조선에서는 하얀 인삼이 더 선호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공(何公)의 흰 머리가 까마귀처럼 검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 백하수오(白何首烏)도 그런 예라 할 수 있다. 이엽우피소 소동을 꺾어서 더 유명해진 백하수오와 적하수오는 효능과 치료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그 효능을 놓고 따지기는 어렵다. 또 단순히 보라색 꽃을 피우는 보통 도라지보다는 흰 색 꽃을 피우는 백도라지가 실제로 더 효능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한국인들이 심심산천의 백도라지를 더 선호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흰 색 동물과 약재를 바라보는 이 같은 관심과 기대의 저변에는 일본인과는 다른 특유의 인식이 분명히 깔려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생각의 발달에는 중국인의 흰 색 동물이나 약재에 대한 발상도 영향을 주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오골계와 흑염소에 대한 애호 역시 흰 색에 대한 관념과의 동일맥락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오방색의 하나인 검정 색이 가지는 힘에 대한 관념은 흑과 백의 싸움을 다룬 중국의 고전이나 바둑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향후의 과제로 삼기로 한다.

한편, 일본고전에 등장하는 흰 색 십이지 동물들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신의 사자 내지는 충성스러운 부하이자 인간의 조력자로서 양쪽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한국 고전에서의 흰 뱀과 흰 말은 양기물로서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식용의 대상이지만, 일본 고전에서의 흰 뱀은 재복을 주는 변재천의 사자이고 흰 말은 지진으로부터 인간을 구해주는 이세신의 사자이자 인간의 조력자인 것이다.

일본 고전에서 보이는 흰 쥐와 흰 개가 보여주는 충성스러운 부하로서의 이미지 또한 한국 고전에서는 좀처럼 찾아 볼 수 없는 일본 특유의 상징성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흰 개를 보고 눈병 치료약이나 벽사, 또는 죽음을 떠올리는 것은 흰 색 십이지 동물을 길조와 흉조의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관점에서는 흰 색 동물이 신의 사자이자 인간에게 보탬을 주는 조력자이기에 부정적인 관념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고구려 차대왕은 흰 여우가 쫓아오는 일을 겪고 나서 점쟁이를 죽였고, 나중에 시해를 당했지만, 일본인들은 농업을 관장하는 이나리신(稻荷神)의 사자인 흰 여우가 나타나면 풍년이 들것이라며 기뻐하는 것이다.

흰 뱀이나 흰 말 같은 동물의 흰 색에서 양기를 얻고자 하는 한국인에 비해, 일본인들은 흰 색을 신의 사자라는 증명으로 받아들이고 흰 색 동물을 통해 신의 힘을 전달받으려 한다. 즉, 신의 대리자이자 매개자, 조력자의 이미지가 훨씬 강한 것이다. 그리고 동물을 통해 신의 힘을 전달받거나 조력을 얻고자 하는 일본인

77) “無論山蔘、種蔘。色白而樣同。然使行時賣買人蔘。俱以土地所種。數次蒸炮。則色自紅潤矣。大抵紅蔘藥力。少遜於白蔘。故弊邦專用白蔘。而中國之捨白取紅。未知其意。” 한국고전종합 데이테베이스 몽경당일사(夢經堂日史) > 몽경당일사 제3권 > 일하잉묵(日下騰墨) ○을묘년(1855, 철중 6) 12월 12일.

들의 이러한 태도는 일본 전래동화 『모모타로(桃太郎)』에서 모모타로가 개와 꿩, 원숭이를 부하로 삼는 장면 뿐만 아니라, 기타하라 하쿠슈(北原白秋)의 자장가 「요람노래(ゆりかごの歌)」에서의 아기가 잠이 들도록 동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장면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즉, 카나리아에게는 아기가 잠이 잘 들 수 있도록 예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르게 하고, 다람쥐에게는 요람 끈을 잡고 흔들어 아기를 재워주도록 부탁하는 것이다. 한국 전래 자장가에서도 동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장면은 보이지만, 그것은 적극적인 도움이라기보다는 아기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하여 방해를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성격이 다르다(자장 자장 우리 아기 꼬꼬닭아 울지마라 우리 아기 잠을 깰라 멍멍개야 짹지마라).

일본인에게 있어서 흰 색 동물은 흰 사슴이나 흰 멧돼지처럼 악신이 동물로 변신한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면<sup>78)</sup> 대개는 행운을 상징하며 특히 십이지 동물의 경우 대체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한국인에게 있어서 흰 색 동물은 때로는 행운을, 때로는 불행을 상징한다. 그리고 양국 간의 가장 큰 상이점은, 일본고전에서는 흰 색 동물이 신의 화신 또는 대리자로서 인간과 신을 연결하거나 인간에게 도움을 준다는 발상이 보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흰 색 동물을 신과 연결시키는 이러한 발상은 결국 흰 색이 가지는 깨끗함을 신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발상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인이 흰 색의 ‘밝음’에서 하얀 해의 양기를 느낀다면, 일본인들은 흰 색 동물에게서 느껴지는 흰색의 ‘깨끗함’에서 신과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하는 것이다. 즉, 흰색 옷을 보고 어떤 사람은 밝은 옷이라고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깨끗하다고 느끼는 차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일본의 신사에 가면 깨끗하고 성스러운 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시데(紙垂)라는 마름모꼴의 흰 색 종이를 흔히 볼 수 있다. 또 신사의 제사장인 간누시(神主)가 부정한 기운을 없애는 오하라이(お祓い)의식 때 사용하는 누키(幣)라 불리는 총채 모양의 막대기에서도 흰색 종이를 역시 볼 수 있다. 결국, 깨끗함을 상징하는 흰 색에 대한 일본인들의 이러한 선호는 더러움이 축적된 상태에서 벗어나 원래의 깨끗함으로 돌아가려는 게가레(穢れ)<sup>79)</sup>의식과도 관련이 있다. 고대 일본사회에서 출산할 때 쓰는 산실이 백색으로 치장되고 흰 옷을 입는 것도 그 때문이며,<sup>80)</sup> 일본 무사들이 할복할 때 흰 옷을 입는 것도 더러움을 씻고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의식 때문이다.

물론 한국인 역시 백의민족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흰 색에서 깨끗함을 느끼기도 하며 금줄에 흰 종이와 숯을 매다는 모습에서 유사한 공통점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흰 색 십이지 동물의 흰 색 깃에서 밝은 양기를 느끼고 그 에너지에 보다 주목한 것이 한국인이라고 한다면, 그 색깔 자체에서 힘을 받기 보다는 깨끗함을 느끼고 신과의 연결에 더 주목한 것이 일본인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78) 『日本書紀』景行天皇の条での日本武尊の項に「山の神が皇子を苦しめようと、白い鹿になって皇子の前に立った…」とか、「能褒野で 亡くなった日本武尊は白鳥となって陵から出て…」との記述、あるいは皇極天皇の条での「虎を友として化身の術を学びとった学僧が、枯山を変えて青山とし、黄土を変えて白い水にするなどの奇術を尽くす…」の例、さらに天武天皇の条での「灌頂幡のような形で火の色をしたものが、空に浮かんで北に流れ、同じ日、白気が東の山に現れ、その大きき四圍であった。その翌日大地震があった…」の例) 辻筆雄, 앞의 책, 149쪽.

79) 신미진, 「일본 헤이안 시대의 작품에 나타난 ‘게가레(穢れ)’ 연구: 생사의례와 관련하여», 『일본연구』 63,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15, 243쪽.

80) 신미진, 위의 논문, 249쪽.

그리고 한국인들의 흰 색이 가지는 밝음, 즉 빛의 힘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광화문 현판 글자색 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최근 현판의 바탕색이 흰 색이나 검정색이냐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원래는 검은 바탕에 흰 색이었던 것으로 정리가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밝은 빛으로 세상을 교화하라는 의미로 왕의 드나들던 정문 위에 걸렸던 현판에 쓰여진 검은 바탕의 흰 글씨에서, 한국인들은 신성한 깨끗함보다는 해의 밝은 에너지를 더 느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다. 빛과 소금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상을 밝게 하는 데에는 하얀 빛이 필요하며, 썩지 않고 깨끗하게 하려면 하얀 소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흰 색 십이지 동물에 대해 느꼈던 흰 색에 대한 관념은, 일본인들이 주목했던 ‘깨끗한 신성함’ 보다는 ‘밝은 에너지’, 즉 양기(陽氣)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것이다.

#### IV. 결 론

이상, 한일 고전에 보이는 흰색 십이지동물의 상징성을 살펴보았다. 인간의 재물을 훔치는 쥐가 흰색일 경우, 일본에서는 오히려 인간에게 재복을 안겨주는 신의 사자로서 인식되는 등, 일본인에게 있어서 흰 색 십이지 동물은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는 중개자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흰색 동물의 흰색이 양기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일본인에게서 흰 색 동물이 주로 신의 사자 내지는 복, 길조를 상징한다면, 한국인에게서 흰 색 동물은 복과 화, 생과 사, 길과 흉을 동시에 상징함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일찍이 흰색 동물을 길조로 여겨왔지만, 흰 개나 흰 말, 흰 소처럼 흰 색 동물이 죽음을 상징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았으며, 한국 고전에서 나타나는 흰 색 십이지 동물의 부정적인 상징성은 바로 이러한 발상의 영향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본인에게 있어서 흰 색 동물이 주로 ‘신성(神性)’을 나타내며 ‘청결(清潔)’과 연결된다면 한국인에게 있어서 흰 색 동물은 ‘양기(陽氣)’를 나타내며 ‘밝음’과 연결된다. 즉, 일본인에게 있어서 흰 뱀은 재복을 전해주는 신성 청결한 신의 사자임을 의미하지만 한국인에게 있어서 흰 뱀은 밝은 양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기왕 뱀기죽 지갑을 만들어 팔 거라면 흰 뱀으로 만들고, 한국에서 기왕 뱀술을 담글 거라면 흰 뱀으로 담그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신성함과 청결함을 상징하는 흰색의 뱀을 통해 신과 연결되어 간접적으로 신의 도움을 받으려하지만, 한국인들은 흰 뱀의 흰색을 통해 직접적으로 양기, 즉 에너지를 얻으려 한다. 결국, 십이지 동물에 보이는 흰색의 경우, 한국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일 경우, 해의 밝음에서 느껴지는 양기, 즉 에너지를 주로 상징하지만, 일본에서는 신과 연결되는 맑고 깨끗함을 주로 상징하기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고 동물의 흰 색깔에 ‘양기’ 내지는 ‘힘’을 느끼는 한국인의 이 같은 발상은 비단 흰 색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흑염소나 오골계(烏骨鷄)와 같은 보양 음식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검정색에서도 나뭇잎의 또 다른 에너지상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양에서는 악마의 화신으로 여겨지는 흑염소가 한국에서는 보양식으로 인식되는 점은 흥미로운 차이일 하겠으며, 흰 색 십이지 동물연구를 통해 얻게 된 본고의 성과들이 향후 검은 색을 비롯한 오방색 십이지 동물 비교연구로 발전되었을 때 그 성과는 보다 명확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 参考文献 >

- 김만태, 「민속신앙을 읽는 부호, 십간(十干)·십이지(十二支)에 대한 근원적 고찰」, 『민족문화연구』 5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1.
- 김은경·김영인, 「한국인의 흰 색 상징」, 『한국색채학회논문집』 20: 4, 한국색채학회, 2006.
- 노성환, 「동아시아에서 본 <고사기>이나바의 흰토끼 설화」, 『일어일문학연구』 85: 2, 한국일어일문학회, 2013.
- 신미진, 「일본 헤이안 시대의 작품에 나타난 ‘계가레(穢れ)’ 연구: 생사의례와 관련하여」, 『일본연구』 63,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15.
- 박병도, 「나마즈에(鯰絵)에 나타난 일본의 지진신앙과 그 변모」, 『역사 민속학』 40, 한국역사민속학회, 2012.
- 박선혜·권영걸, 「한국 속담에 나타난 서민의 색채의식 연구」, 『한국색채학회논문집』 19: 3, 한국색채학회, 2005.
- 이규완, 「삼국시대 색채어의 종류와 길흉표현기능에 관한 연구: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 3, 한국언론학회, 2011.
- 이순희, 「삼국유사에 나타난 신라인의 색채 의식과 색채 상징성 연구」,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23: 1, 2009.
- 이연숙, 「한국과 일본의 고대문헌에 나타난 흰색 비교 연구」, 『비교문학』 59, 한국비교문학회, 2013.
- 이재선, 「한국문학과 색채론」, 『한국문학의 주제론』,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1.
- 조태성, 「한국 선시에 나타난 소(牛)의 상징성」, 『배달말』 40, 배달말학회, 2007.
- 양희석, 「띠와 쥐의 설화」, 『中国語文学』 65, 한국중국어문학회, 2010.
- 윤세순, 「한문소설에 나타난 주요 동물의 문학적 형상」, 『동방한국중국문학』 62, 동방한문학회, 2015, 69~76쪽.
- 조희무, 「漢語色彩語研究」, 『中国人文学』 34, 중국인문학회, 2006.
- 차정민·요코다마사오(横田正夫)·미즈보시무네오(三星宗雄), 「색채선호와 思考스타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한국인, 일본인, 일본체재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색채학회논문집』 23: 4, 한국색채학회, 2009.
- 표인주, 「말의 민속적인 관념과 신앙의 의미」, 『한국학연구』 51,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 赤林英夫, 「丙午世代のその後: 統計から分かること」, 『日本労働研究雑誌』 569, 2007.

- 倉野憲司・武田祐吉, 『古事記祝詞』, 日本古典文学大系〈第1〉, 岩波書店, 1958.
- 坂本太郎, 『日本書紀 上』, 日本古典文学大系67, 岩波書店, 1967.
- 坂本太郎, 『日本書紀 下』, 日本古典文学大系68, 岩波書店, 1967.
- 浦山政雄, 『歌舞伎脚本集 下』, 日本古典文学大系54, 岩波書店, 1961.
- 高木市之助, 『平家物語 下』, 日本古典文学大系33, 岩波書店, 1960.
- 鈴木あゆみ, 『語文論叢』 15, 千葉大学文学部, 1987.
- 山田孝雄, 『今昔物語集 1』, 日本古典文学大系22, 岩波書店, 1959.
- 山田孝雄, 『今昔物語集 2』, 日本古典文学大系23, 岩波書店, 1960.
- 辻筆雄, 「日本の古典文学と色彩1」, 『宝塚造形芸術大学紀要』 7, 宝塚造形芸術大学, 1993.
- [그림 1]クレヨン則さん則さん, 寿好堂よし国の大黒の画像「写仏の塗り絵名画の塗り絵」, 2007.  
<http://www.creyon-nurie.com/2007/7fukujin/newpage48.html>(2017.1.6.)

\* 이 논문은 2016년 11월 25일에 투고되어,  
 2016년 12월 6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6년 12월 2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12월 30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 Abstract |

## A Comparative Study on the Symbolism of the White Animals of the Twelve Horary Signs of Korean and Japanese Classical Literature

Keum, Youngjin\*

Comparative studies of Korea and Japan about symbolism of the animals of the twelve horary signs have already been done but those classified by Obangsaek(五方色; The Five Cardinal Colors; the East Asian traditional five colors of white, black, blue, yellow and red) have never been examined. Hence this thesis focuses on white animals among the five types of colored animals of the twelve horary signs in the classical literature of Korea and Japan as the subject because white is the most commonly seen color of Obangsaek in classic literature of the two countries.

The symbolism of white animals had an auspicious image in ancient China. However, there is an evident difference in the symbolism of it between Korea and Japan. That is, white animals of the twelve horary signs in Japanese classical literature usually have affirmative symbolism as messengers of god and they connect god and human, delivering good fortune from god to human. On the other hand, White animals in Korean classical literature have antithetic symbolism as 'affirmative distinction' and 'negative strangeness'. Thus, on a scale of one to a hundred, the attitude of viewing white animals as affirmative is a hundred in Japan while being only fifty in Korea. This difference comes from different perceptions about the white color of animals as the Japanese view it as 'purity' or 'sacredness', and the Koreans take it as 'affirmative distinction' or 'negative strangeness'. Images that the Japanese have towards white animals are mostly 'affirmative' while those that the Korean have towards white animals, 'affirmative' and 'negative' are mixed. White animals symbolize 'good fortune' to the Japanese but for the Korean white animals can be 'good fortune' or 'misfortune'.

Moreover, even in the case of taking the white animals as 'affirmative', there is a clear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Japan. For example, the Japanese view the white snake as that which connects god and human and gives good fortune and money. On the other hand, the Koreans recognize them as medicated food that provides good energy. In this case, the white

---

\* An irregular lecturer in College of Japanes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imals symbolize 'Good fortune' to the Japanese and 'Good energy' to the Koreans.

**[Key Words]** Korean and Japanese classical literature, white color, the twelve horary signs, animals, symbolism